



윤석열 대통령, “기업인들, ‘세계시장’이 ‘내시장’이라는 자신감을 갖고 과감히 뛰어 들어가야..”

2023 중소기업인 대회에서 중소·벤처·소상공인과 소통의 시간 가져

윤석열 대통령은 5. 23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 참석해, 중소·벤처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의 중요성과 스타트업, 기업인의 혁신·도전을 통한 경제적 가치 및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정부가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 중심의 민간 주도 경제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격려 말씀을 통해, 최근 공급망 분절과 블록화되는 통상·무역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는 기업과 원팀이 되어 기업의 해외 진출 및 수출을 적극 뒷받침하고 있으며, 우리 기업들이 보다 더 과감하게 창의와 혁신으로 무장하여 세계 시장 속으로 뛰어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우리 기업들이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불안해할 이유도 없다고 하면서 “세계시장이 내 시장이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용기를 내어 과감히 뛰어 들어 달라. 정부도 시장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작동되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당부했

다. 특히, 중소·벤처기업이 대기업과 함께 성장할 때 세계시장에서 최고의 품질과 혁신 제품으로 경쟁할 수 있고, 그것이 우리의 경쟁력과 직결된다며, 세계시장에서의 경쟁은 개별 기업 대 개별 기업의 경쟁이 아니라 생태계 대 생태계, 클러스터 대 클러스터 간의 경쟁이라고 했다.

또한, 공정한 시장경쟁 시스템 아래에서, 스타트업과 기업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며, 일자리는 정부의 직접재정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스타트업이 만드는 것이고 창의와 도전정신이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민간 주도 경제를 지향하고, 시장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작동되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오늘 행사에서 경제발전을 위해 노력한 중소기업인들을 격려·포상했다. 또 참석한 중소·

벤처기업 관계자들과 미래세대들은 협력을 통해 앞으로 같이 성장하겠다는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함성 대한민국) 선포식과 함께, 선후배 중소기업 간 협업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오늘 참석자들의 절반 가량은 40대 이하 청년 기업인들로서, 선배 기업인들과 함께 성장하겠다는 의지를 다짐하기도 했다.

이날 중소기업계가 선포한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벤처기업, 여성기업, 플랫폼기업 등 선배 기업이 후배 세대의 혁신성장을 위한 멘토링, 네트워킹 및 협업 등을 지원하며, 민간이 중심이 되어 모든 경제주체가 함께 성장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중소기업계 전반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는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 세부 프로그램의 운영·관리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온라인 포털을 구축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민간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이타적 사회봉사 활동을 지속 뒷받침할 계획이다.

오늘 행사 막바지에는 선후배기업 간의 협업을 통해 성장한 우수기업 간의 사례 발표 및 토론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기초발제를 맡은 서울대학교 유병준 교수는 청년 스타트업이 유니콘으로 성장하는데 선배 기업가의 멘토링과 엔젤투자자의 역할이 결정적 기여를 한다는 추세와 사례를 발표했다. 이어서 선배 로봇기업인 '레인보로보틱스'로부터 음식조리 자동화 기술을 제휴받고 미국 진출·투자유치 노하우를 전수받아 음식조리 로봇을 생산하고 미국에 수출할 수 있게 된 '로보아르테'의 사례가 참석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외에도 SKT로부터 기술협력 등을 받아 시각장애인용 내비게이션을 개발한 'LBS테크', '(사)단디벤처포럼'으로부터 창업멘토링·투자사업 등을 지원받아 필라테스 시설 공유 플랫폼을 창업한 '썬위캔', '유니코글로벌'로부터 수출 네트워킹 등을 지원받아 전기자동차 충전기 수출판로를 개척한 '모던텍' 등이 협업사례를 발표했다.

경남도, ‘한화그룹 우수협력사 일자리 박람회’ 성황

경남도는 24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IBK기업은행, 한화그룹, 한국폴리텍대학과 함께 ‘한화그룹 우수협력사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했다.

이번 박람회는 민관이 협력해 구인·구직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 고용시장의 활력을 되찾는 데 힘을 함께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개막식에는 최만림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김성태 IBK기업은행 은행장, 임춘건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 직무대리, 류영관 한국에어로스페이스 부사장, 윤안식 한화시스템 부사장이 참석해 구인 기업을 격려하고 청년의 취업 현장을 직접 살폈다.

코스닥 상장사인 이엠코리아(주), ㈜빅텍을 비롯해 한화그룹 협력사인 (주)경인테크, 대건테크, (주)한국화이바, IBK기업은행 거래 우수기업인 ㈜케이씨, ㈜대호테크 등 지역의 유망 중소·중견기업 70여 개사가 참여해 286명의 신규 채용을 목표로 현장 면접과 채용 상담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청년이 취업 준비에 재미를 더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졌다. ▲취업 상식 및 일자리 관련 퀴즈 서바이벌인 ‘도전! 취업준비 골든벨’ ▲직장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OX 퀴즈 형식으로 소통하는 ‘MZ오피스’ ▲한화그룹 및 중소기업 현직자가 참여한 토크쇼인 ‘직무톡톡’ ▲사회초년생 자산 형성을 위한 ‘자산관리 특강’ 등이 이어져 구직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외에도, 한화그룹, IBK기업은행,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민국 육군 등 기관별로 홍보관을 운영해 취업 지원 정보와 각종 일자리 정책을 소개했으며, (재)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과 한국폴리텍대학에서는 취업



장재현기자

이철우 지사, ‘K-DREAM’ 인도 델리대 특강, 인재 ‘스카우터’ 자칭

- 14억3천만 명의 대국, 인도 유학생 1천명 유치 위해 대학 방문
- 델리대서 이 지사 직접 영어로 특강... 인도 대학생과 밀착 소통
- 경북의 경제성장 정신, 명문대학, 지역특화비자 등으로 인재 유치 앞장

경북의 경제성장 정신, 명문대학, 지역특화비자 등으로 인재 유치 앞장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IT분야 우수 인재 유입을 통한 지역대학 위기 극복과 4차산업시대 지역혁신 성장을 주도할 유학생 1만명 유치에 직접 나선다.

경북도는 지난 23일, 인도 델리대학교 등을 방문해 현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도지사 특강과 유학생 유치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한국-인도 수교 50주년을 맞아 양국의 교류가 점차 확대되는 시점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인재로 알려진 인도 대학생들을 유치해 지역대학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향후 경북 기업 취업으로까지 연계해 새로운 인재의 힘으로 지방시대를 선도하고자 추진됐다.

이철우 지사 취임 후 외국대학교 특강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는 최근 지방대학 권한이 지방정부로 이양되

는 등 ‘지방대학 시대’가 본격화됨에 따라 도 차원에서 직접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인도 델리대학교는 100년이 넘는 역사와 전통을 가진 세계적인 명문대로 나렌드라 모디 현 인도 총리를 배출하는 등 16개 학부, 87개 학과에서 재학생 2만4천여명이 공부하고 있다.

이 지사는 ‘More Opportunities, Better Environments K-Dream!’이라는 주제로 코리안 드림은 경북에서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강연을 펼쳤다. 특히, 이 지사는 40분간 영어로 특강을 펼쳐 대학생들과의 소통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강연장인 델리대학교 강당의 600석 가까운 좌석이 현지 대학생들과 교직원으로 가득 메워지는 등 강연은 열기로 가득했다.



“한국과 인도, 특히 경북은 경료호친 사상, 독립운동역사 등 오래전부터 문화·역사적 유대성을 가지고 있다”며 강연을 시작한 이 지사는 “세계 최빈국에서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까지 기적으로 불린 눈부신 대한민국의 성장스토리에 경북에서 시작된 새마을운동이 있었다”고 강조하는 한편, 현재 K-Pop, K-food 등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러한 유학 설명회에서는 경북으로 유학을 오는 학생들이 입주부터 취업·정착까지 불편함이 없도록 경북만의 특화된 외국인 지원정책과 지역대학의 우수한 학위·어학 프로그램을 소개해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특히, 석·박사급 해외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준비 중인 경북형 초청 장학생제도(R-GKS : Regional-Global Korea Scholarship, 지역초청·글로벌 장학생)와 거주비자(F-2)를 빠르고 간소하게 받을 수 있는 지역특화형 비자 등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높았다.

경북도에서는 지역특화형 비자 정책의 도입으로 비자문제로 어쩔 수 없이 한국을 떠나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외국인들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 방안이 담긴 외국인 공동체 모델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R-GKS제도와 글로벌 한글학교를 통해 유치·정착 체계를 갖춰 가고, 경북도의 주력 산업과 대학을 연계한 맞춤형 인재 양성을 추진한다.

경북 비자센터를 통해 거주비자(F-2) 발급을 지원하고, 취업과 관련해 외국인들에게 법률 상담 및 직장 내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힘쓴다.

아울러 경북 가족센터와 연계한 정착지원 서비스를 지원한다. 통역 서비스, 선 이주인 멘토링 서비스, 자녀 학습지원, 돌봄 서비스 등 총총한 설계로 경북을 찾아오는 외국인들에게 포용적인 공동체 사회를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현재 한국 거주 인도인은 1만2천여명(2021년 기준)으로 주로 기초과학 학문의 대학원생, IT·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도의 젊은 인재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 지사는 다음 일정으로 네루대학교를 방문해 부총장 및 관계자들과 면담하고 상호 교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 후, 현지 한국어학과에 다니는 인도 학생 150여명을 만나 격려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학령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등록금 동결, 수도권 인재 집중화 등으로 지역 대학의 위기와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라며, “앞으로 저부터 ‘경북 1호 인재 스카우터’로 해외 인재 유치를 통한 지역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기회의 땅 경북에서 꿈을 펼쳐나갈 수 있게 운동화가 달도록 뛰고 또 뛰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는 외국인유학생 유치를 위해 올해 하반기에는 베트남에서 경북 유학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윤근수기자

이용호 의원, 2024년도 예산 확보 위해 세종청사 방문

남원, 임실, 순창 및 전북도 예산의 정부안 반영 관련 부처에 적극 요구

이용호 의원(국민의힘,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23일, 남원, 임실, 순창의 주요 사업 예산을 2024년도 정부안에 반영시키기 위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등을 방문했다.



이용호 의원은 먼저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과 김완실 예산실장을 만나 남원, 임실, 순창의 신규, 계속 사업 전체의 정부안 반영을 적극 도와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국토교통부 어명소 2차관, 문화체육관광부 조용만 2차관,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관리실장, 농림축산식품부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 등을 만나 지자체가 요청한 지역의 현안 사업들을 정부안에 반영시켜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외에도 이 의원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로서 전북도가

요청하는 K-콘텐츠 지원센터 건립 등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사업도 함께 챙겼다. 이용호 의원은 "지난 해에도 세종청사를 방문해 남원 유소년스포츠 컴플렉스 건립, 임실 명경테마랜드

조성 등을 위해 땀과 노력은 성과로 거뒀다. 남원, 임실, 순창과 전북의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사업을 위해서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 말했다.

이남출/기자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 베트남 응에안성 인민의회 대표단 접견...코로나로 중단된 상호교류 '재개'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23일 의장 접견실에서 베트남 응에안성(Ngh/ An / 省义安) 인민의회 대표단을 만나 코로나19 발생 이후 중단됐던 상호 교류를 재개했다.

응에안성 인민의회는 올해로 우호교류 양해각서 체결 10주년을 맞은 도의회의 친선연맹 기관이다.

도의회는 이번 접견을 시작으로 기관 간 협력 활성화 방안을 구체화하는 등 교류 공백 해소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염 의장은 이날 응웬 남딘(Nguyen Nam Dinh) 부의장을 비롯한 응에안성 인민의회 소속 대표단 8명을 만나 양 기관의 우호관계 강화를 위한 의지를 밝혔다.

이 자리에는 베트남 응에안성 친선의원연맹 회장인 문형근 의원(더민주, 안양3)과 김종석 의회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염 의장은 "2018년 이후 5년 여만에 응에안성 인민의회 대표단이 방문함으로써 장기간의 공백 해소의 첫발을 내딛게 된 점을 의미 있게 여긴다"라며 "지난해 한-베 수교 30주년을 맞은 데 이어 양 의회 교류가 재개됨에 따라 기관 간 이해와 우의의 폭이 두터워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베트남은 풍부한 자원을 기반으로 비약적 발전을 이룰 가능성을 지닌 역동적 국가"라며 "오늘을 계기로 의회 간 친교를 강화해 양 지역 발전을 모색해 나갔으면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응웬 남딘 부의장은 "한국과

베트남은 성실하고 자유를 추구하며 일과 교육을 향한 강한 의지를 지녔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많다"라며 "비교적 짧은 수교 기간에 비해 돈독한 관계를 맺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 같은 공통사항 때문일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베트남이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한국의 발전과정과 비결을 잘 보고 참고해야 할 것"이라며 "양 의회가 지속 교류하고 협력하며 경기도와 응에안성은 물론, 양국의 발전에 이바지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날 응에안성 인민의회 대표단은 도의회 전시체험공간인 '경기마루'와 분회회장을 견학하고, 염 의장을 비롯한 친선의원연맹을 공식 초청했다.

한편, 도의회는 지난 2013년 3월 18일 응에안성 인민의회와 우호교류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래 코로나

19 발생 직전인 2019년까지 상호 10회에 걸쳐 방문했다.

특히, 도의회는 경기도 ODA(공적개발원조,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사업을 통해 베트남 현지에 불용 소방차 양여, 스마트 교실 구축 등의 지원을 실시했다.

응에안성은 베트남 북중부 지역 중앙에 위치한 지역으로 베트남 초대 의장인 호찌민 주석의 고향으로 잘 알려져 있다. 베트남 58개 성(城) 중 면적이 가장 넓고(16,500km²), 인구가 4번째(330만 명)로 많다.

응에안성 인민의회는 지방에서 국가공무원의 권력을 대표하며 주민의 의지를 반영하는 최고 기관이다. 의원은 총 91명으로, 임기는 2021년부터 2026년까지이며 의장과 2명의 부의장, 집행위·경제예산위·사회문화위·소수민족위 등 4개 위원회로 구성돼 있다.

조혜영/기자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등 의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순열)는 제83회 정례회가 시작된 22일 제1차 회의를 열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 운영규칙 제정 및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촉구 결의안' 1건을 심사하고, 23일에는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조례안 및 동의안 등 21건을 심사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1건을 심사했다. 그 결과 15건을 원안 가결하고 5건을 수정 가결했으며 1건을 찬성 의견으로 의결했다.

먼저, 경제 분야에서는 SW융합클러스터, 과학벨트 네트워크 플랫폼,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출자·출연 동의안을 심사했다. 또한 농업 분야에서는 윤지성 위원이 「세종특별자치시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 등을

발의해 농촌인력 부족 문제의 해소와 양봉산업 육성, 체계적인 로컬푸드 사업 시행 등을 위한 대책 수립과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건설·도시 분야에서는 김광운 위원이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실행조사 강화를 통해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했다.

더불어 이현정 위원이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옥외 광고물 표시 방법 관련 사항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 효율성을 도모했다.

또한 환경 분야에서는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과 재사용을 도모해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사회로 전환하고자 이순열 위원장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이 의결됐다. 끝으로 박란희 위원은 「세종특별자치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진압용 시설의 설치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순열 산업건설위원회장은 "이번 회기 중 의결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를 통해 도농 상생을 도모하고, 건축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조례안의 결과 근거 규정이 마련된 각 분야 지원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산업건설위에서 통과된 안건은 오는 6월 15일에 열리는 제8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최정근/기자

문화매일 <http://www.dailyculture.kr> 대표전화:1899.9659

대표이사:발행인:최수진 . 편집국장 :최재은. 부회장:박유석. 임석경 청소년책임보좌:최수진

(주)문화매일 등록번호 서울 아 50710 등록일 2013-07-12 제호 : 문화매일신문 | 등록번호 : 서울 가 50146 | 등록일 : 2009-04-20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편집국:02.2612.2959	경치부:대선 (112)	문화부:대선 (116)
광고국:1899.9659	사회부:대선 (113)	부동산부:대선 (117)
	경제부:대선 (114)	오리니언부:대선 (118)
	스포츠부:대선 (115)	지방부:대선 (119)

서울본사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714 스카이벨리2차 708호

경기본사 : 경기 광명시 시청로 7 흥신 에이스텔 701호

사외(社外) 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금호워터폴리스

- 상업, 근생, 지원, 단독주택, 주차장용지 수의계약 공급 중
- 관광숙박시설용지 공급 중

안심뉴타운 ANSIM NEWTOWN

- 일반상업, 준주거시설용지 수의계약 공급 중

분양문의 053) **350-0300**

대구도시개발공사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www.dudc.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월 28일 반포 한강공원으로 자전거 축제 즐기러 오세요!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자전거를 사랑하는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서울의 대표 자전거 축제 "2023 서울 자전거 축제"가 5월 28일 "모여라 자전거!" 슬로건에 맞춰 반포 한강공원을 무대로 개최된다.

반포 한강공원에서 열리는 이번 자전거 축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열리며, 자전거 관련 기업, 단체들과 협력하여 △무대공연 행사, △시민 체험 프로그램, △자전거 안전교육 및 자전거 전시부스를 운영한다.

올해는 자전거에 대한 긍정적 경험과 재미를 더 많은 시민이 공유할 수 있도록 행사의 문턱도 낮췄다. 특히 강남·북의 주요 자전거 이용 거점인 반포한강공원과 중랑천에서 상반기, 하반기 2회로 확대 개최함으로써 시민들의 참여폭을 넓히고,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에 대한 관심도 고조시킬 계획이다.

시민들의 많은 관심으로 1년 1회 개최했던 축제를 상·하반기 총 2회로 확대한다. 상반기에는 반포한강공원, 하반기에는 중랑천에서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먼저 자전거의 색다른 묘미를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공연이 준비된다.

흥을 돋울 치어리딩 공연, 점프를 비롯해 고난이도 기술과 묘기를 선보이는 BMX 자전거 묘기 공연도 열린다. 또한 '3단 자전거' 공연, 미니자전거공연, 자전거 안무를 연출하는 스피닝 공연까지 열려 이색적인 자전거 공연의 매력을 느낄 수 있다.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즐길 수 있는 참여 행사들도 선보인다. 생활속 자전거 이용 시민들을 위해 다양한 경품 증정 행사, 릴레이 자전거를 통한 기부 이벤트, 유명 스포츠 선수들의 자전거 인력거 셔를 운행, 자전거로 주스 및 솜사탕 만들

기 등 자전거 이용 가능 여부와 상관없이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알차고 다양한 즐길거리를 아름다운 한강과 함께 만끽할 수 있다.

자전거를 타고 오면 주행 인증자 선착순 2,000명, 가장 많은 인원수가 참여한 자전거 동호회 등에게는 경품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다. 릴레이 자전거 체험은 주행 10m당 1원씩 기부금을 적립하여 즐겁고 유쾌한 나눔문화를 공유하고 최대속도, 최대거리 당첨자 역시 경품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다.

또한, 인력거 업체 (썸아띠와 유명 스포츠 선수들이 직접 운영하는 자전거 인력거 셔를 택시를 탈 수 있는 익살스런 퍼포먼스 체험도 즐길 수 있다.

이외에도 가상(VR) 자전거 체험과 자전거로 발전기를 돌려 생산된 친환경 에너지로 만든 솜사탕, 주스 시음 체험 등 이색적인 경험을 선사할 계획이다.

자전거 문화와 안전에 대해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된다. 자전거 안전 교육 및 자전거 교통안전 인증제 체험을 즐길 수 있으며, 자전거 튜닝, 자전거 무상점검 및 수리하는 프로그램도 체험할 수 있다.

자전거 튜닝 전문업체 (썸팻)에서 자전거 튜닝을 원하는 모두에게 튜닝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울광역시 자전거 협회가 참여해 자전거 수리 및 점검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전거를 안전하게 타는 방법 등 어린이도 쉽게 배울 수 있는 자전거 교육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다.

또한, 다채로운 구경거리도 만나볼 수 있다. 서울시 공공자전거인 포르쉐가 함께 디자인한 "아트따릉이", 재생 자전거, 전기 자전거 전시를 함께 볼 수 있으며, 서울광역시 자전거 협회에서 주관하여 자전거 나눔 바자회를 열어 무료 또는 저렴하게 자전거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여

자전거 입문계층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무료 나눔 문화를 공유한다.

재생 자전거 전문업체인 라이트 브라더스를 포함한 다양한 업사이클링 및 전기 자전거 제품을 직접 살펴볼 수 있다.

한편, 모든 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세부 진행 내용은 '2023 서울 자전거 축제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문의전화를 통해 가능하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올해는 시민들 현장 속으로 직접 찾아오는 자전거 축제를 기획했고, 일상 속에서 자전거를 더 쉽고 재밌게 이용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자전거는 탄소중립시대의 친환경 교통수단이자 시민의 건강관리, 여가활동 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앞으로도 자전거 이용활성화 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2023 서울 자전거 축제
2023.05.28 Sun
10:00~17:00
반포한강공원 달빛광장

EVENT 1 모여라 자전거
EVENT 2 모여라 동호회
EVENT 3 서울 릴레이 자전거

송파구, 6년 연속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23년도 재난관리평가에서 송파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송파구는 6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서울시 자치구 중 최다 수상을 하며 민선 8기 정책목표인 '안전한 송파'를 달성하고, 명실상부 안전제일 도시임을 증명했다. 재난관리평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3조의 2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하여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재난관리 단계별 역량을 진단·개선하고 국가 차원에서 재난관

리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다.

2023년 재난관리 평가는 총 338개 기관(중앙부처 29, 지자체 243, 공공기관 66)을 대상으로 재난관리 단계별, 유형별 관리 실태를 진단하기 위한 36개 지표로 구성되어 중앙재난관리평가단과 민간전문가 심사를 통해 전문적·종합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이번 우수기관 선정에는 기관장 인터뷰 결과 재난관리에 대한 송파 비전, 추진의지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고 효율적인 재난자원 관리, 재난안전 관련 다양한 정책 실현 등 다양하고 차별화된 생활 밀착형 시책을 추진해 온 결과이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이번 평가 결과를 토대로 우수한 역량은 더욱 강화하고 미흡사항을 개선함으로써 2024년도 재난관리평가에서 최우수기관 선정은 물론, 구민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향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이라고 전했다.

황규석/기자

영등포구, 다시 뛰는 중장년! 인생 2막 돕는다

6.6.까지 만 40~59세 이하 중장년 대상 '도배기능사 자격증 과정' 모집

영등포구가 구직 중이거나 취창업 준비하고 있는 4050 중장년의 재도약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도배기능사 자격증 과정을 비롯한 다양한 취창업 교육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퇴직연령이 빨라지고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지면서 중장년 퇴직자 혹은 퇴직 준비자가 크게 늘어났다. 이에 구는 정년이 없어 중장년의 재취업이 용이한 도배기능사 자격증 과정을 운영한다.

교육은 최대한 많은 교육생들이 수강할 수 있도록 1차 교육(6.12.~6.30.)과 2차 교육(7.3.~7.21.)으로 나뉘어 영등포청년건축학교에서 진행된다.

모집인원은 각 과정당 8명이며, 구에 거주하는 만 40세~59세 이하의 미취업 중장년은 6월 6일까지 영등포청년건축학교로 수강 신청을 할 수 있다. 교육비는 무료이며 신청자가 많으면 면접을 통해 교육생을 선발한다.

이론 10시간, 현장 실습 92시간 교육을 통해 도배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교육 후에는 독거노인, 반지하 가구 등 취약계층 집수리 봉사에도 참여해 다양한 현장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구는 중장년의 취업 기회 확대와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위해 하반기에 구인·구직 만남의 장인



한편 구는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요양보호사 자격증 과정, 빅데이터 활용 온라인스토어 창업 과정 ▲중장년을 위한 일반경비 교육, 전기 기술 인력 양성 과정, 직무 역량 강화 교육 등 인생 후반전을 준비하는 중장년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자격증 과정부터 창업지원, 생애설계 컨설팅까지 10개 분야의 교육 과정을 운영한다.

덧붙여 구는 중장년의 취업 기회 확대와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위해 하반기에 구인·구직 만남의 장인

'중장년 취업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박상준 일자리정책과장은 "중장년이 활력 있고 행복한 도시, 영등포를 만들기 위해 역량 강화, 자격증 과정, 생애설계 등 다양한 취창업 교육을 준비했다"라며 "앞으로도 중장년뿐만 아니라 청년, 경력단절여성, 취약계층, 어르신 등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정책으로 활력 넘치는 영등포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박향신/기자

영양 들여다보기

한걸음 다가갈수록 영양의 속살이 느껴집니다 하루라도 좋고 며칠 묵으시면 더 좋습니다 찾아볼수록 매력이 샘솟는 영양으로 오세요



www.yyg.go.kr



들여다볼수록 매력이 솟아나는 영양나들이... 마음을 두고온 영양, 사진에 담은 영양



길: 110000 원도보로...
물: 10000 원도보로...
빛: 10000 원도보로...
맛: 10000 원도보로...
심: 10000 원도보로...
수: 10000 원도보로...

감동을 이어가는 스토리텔링! 영양나들이

- 영양의 자연, 일월산, 선바위와 남포, 삼계곡, 수하계곡, 본신계곡, 침박공원, 축백수림, 외씨버섯길
- 영양의 역사, 음식디미방, 서석지, 두들마을, 주실마을, 감천마을, 지경마을, 금촌마을, 감산성, 옥산마을
- 영양의 박물관/공원, 영양국제밤하늘보로공원, 반딧불이천문대, 영양생태공원, 영양고추홍보전시관, 밀물산자연화원, 영양농력발전지, 용림산자연휴양림, 영양산촌생활박물관, 본재수석야생화전시관



성북구,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특(TALK) 터놓고 이야기합시다!

현장·사람 중심의 소통 행정을 이어온 성북구가 지난 22일 서울성북미디어문화마루에서 '공동체 분야'를 주제로 '2023 현장구청장실 특(TALK) 터놓고 이야기합시다' 3회차를 운영했다.

성북구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 300여명과 이승로 성북구청장을 비롯한 관련 부서장들이 참여했다.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서로의 의견을 듣고 함께 해결방안을 찾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이승로 성북구청장이 토론 주제인 '공동체'라는 단어로 삼행시에 도전해 성공하며 분위기를 띄웠다.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현장에서 발로 뛰겠다는 다짐을 주민에게 전달해 기대감을 높였다. 또한 참여자 간 악수와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마련해 '우리 모두가 이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어서 온-오프라인을 통해 사전

접수된 6건의 주민제안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공동주택 동아리 활성화 지원, 공동주택 연합행사 개최, 찾아가는 주민교육 및 마음 챙김 프로그램 등 다양한 안건으로 구성됐다. 이 중 공동주택 간 주민화합을 위한 공동주택 연합행사는 안전상의 문제 등을 고려해 향후 행정과 주민 간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추진 방안을 모색하기로 약속했다.

주민제안에 대한 토론이 끝나고 이어진 즉문즉답 시간에는 더욱 다양한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아파트 도서관 사서 교육 지원, 경비실 환경 개선 등 공동주택 커뮤니티에 관한 다양한 현장 질문이 계속돼 예정 시간이 2시간을 훌쩍 넘겼다. 공동체에 대한 주민들의 높은 관심을 체감할 수 있었다.

또한 현장구청장실이 진행되는 동안 '오픈 채팅방'을 함께 운영했

다. 참여자들 간 자유롭게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활발한 실시간 소통이 이뤄졌다.

한편 '2023 현장구청장실 특(TALK) 터놓고 이야기합시다'는 기존의 동별로 운영되던 방식에서 벗어나, 아이행복·청년·공동체·복지·주민자치 등 5대 주제를 정하고 구청장과 주민이 심도 있게 토론하는 '주제별 현장구청장실'로 운영된다.

아이행복·청년·공동체 분야는 마무리됐으며, 향후 복지(5/23), 주민자치(5/25) 분야가 서울성북미디어문화마루 내 꿈빛극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성북구 현장구청장실은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송출된다. 관심 있는 주민은 누구나 시청 가능하고 실시간 채팅을 통해 소통에 참여할 수 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성북TV'를 검색하면 된다.

강성원/기자

수원시, '새빛안전지킴이' 본격적으로 양성한다

공직자 1000여 명 교육 이수... '찾아가는 교육'·'상설 교육'도 진행



수원시가 재난·재해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새빛 안전지킴이'를 본격적으로 양성한다. 수원시는 지난 2월 '새빛 안전지킴이'를 본격적으로 양성한다.

수원시가 재난·재해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새빛 안전지킴이'를 본격적으로 양성한다. 수원시는 지난 2월 '새빛 안전지킴이'를 본격적으로 양성한다.

레 교육을 진행하고, 1000여 명이 교육을 이수했다. 30일 시청 대강당에서 10번째 교육을 연다. 새빛안전지킴이 교육은 안전교육 분야 전문 강사의 대면 교육(2시간)으로 이뤄진다. 응급처치·심폐소생술 방법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실습한다. 교육을 이수한 시민·공직자에게는 모바일 이수증을 발급한다. 동행정복센터, 구청, 사업소 등을 찾아가 교육하는 '찾아가는 교육'과 수원시민회관 대강당·수원시 교통안전교육장에서 상설 교육도 진행한다. 상설교육은 신청자가 20명 이상이면 개설된다. 9월까지 150회 교육을 추진해 5000여 명을 '새빛안전지킴이'로 양성할 계획이다. 수원시민(개인·단체)은 누구나 교육을 신청할 수 있다. 수원시 홈페이지에서 '새빛안전지킴이 교육'을 검색해 신청할 수 있다.

찾아가는 교육은 신청서를 내려 받아 전자우편으로 신청해야 한다. 전화로 신청해도 된다. 새빛 안전지킴이는 ▲위험 상황 상시 모니터링 ▲재난·재해 발생 시 신고 ▲응급상황 발생 시 응급 처치(심폐 소생술) 등 역할을 하게 된다. 수원시는 올해 수원시민의 1%(1만 2500명)를, 2026년까지 수원시 인구의 5% 이상(6만 2500명 이상)을 새빛안전지킴이로 양성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분초를 다투는 급박한 순간에는 소방·경찰이 도착하기 전 시민이 안전지킴이가 돼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며 "내가 가족과 이웃의 귀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새빛안전지킴이 교육에 많은 시민이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혜영/기자

안양시, 풍수해 대비 유관기관 회의 및 통합방위예규 개정 서명식 개최

최대호 시장 "협력체계를 재점검해 풍수해 대비에 만전"



안양시는 올 여름 풍수해를 대비해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을 위한 본격 준비에 나섰다. 시는 23일 오후 2시 시청 3층 접견실에서 동안·만안경찰서장, 안양 소방서장, 군부대(제2506부대 3대대장)가 참석한 가운데 '재난 안전을 위한 풍수해 유관기관 협력 회의'와 '통합방위예규개정 합동 서명식'을 개최했다. 유관기관 협력 회의에서는 시가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계획을 알리고, 재난 발생 시 유관기관의 협조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다.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계획에 따르면, 시는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거나 태풍 경보가 발표되는 '비상 3단계(심각)' 발생 시 유관기관과 협조해 대응한다.

또 이날 통합방위예규 개정에 대한 서명식을 진행했다. 기존 안보위주의 협조 체계에서 시민 안전 관련 내용을 추가하여 각종 재난, 사고 발생 시 더욱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통합방위예규는 전시와 평시에 군사적·비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관·군·경·소방의 협력체계 구축 및 통합 방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각 기관별 임무와 역할, 협조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협력체계를 재점검하여 풍수해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안보태세 확립을 통해 누구나 안심할 수 있는 행복도시 안양을 완성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우용/기자

화성시에 세계적 반도체 장비기업 또 들어선다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제조기업 ASM, '화성 제2제조연구혁신센터' 신축

반도체 ALD(원자층증착) 장비 세계 1위 기업인 네덜란드 ASM이 화성시 영천동에 '화성 제2제조연구혁신센터'를 설립한다. 화성시에 따르면 ASM코리아는 기존 시설 바로 옆 7,401㎡(약 2,240평) 규모 부지에 1,350억원을 올해 투자해 2025년까지 제조와 연구시설 등을 확충한다. 제2제조연구혁신센터 설립으로 200명 이상의 고용창출을 기대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지속적으로 투자를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기공식은 24일(수) 영천동 ASM코리아 본사 사옥에서 진행됐다. ASM은 ASMI의 새로운 이름으로 1968년 네덜란드 알메르에서 설립되어 전세계 15개국에 4,300여 명의 직원과 반도체 장비분야 또한 2,619개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2022년 총 24억 유로(약 3조 5,000억 원) 매출을 달성한 글로벌 10위 반도체 장비기업으로 원자층 증착(ALD) 장비 세계 1위 기업이다. 원자층 증착 장비는 웨이퍼에 원자 단위 깊이 산화막을 증착하는 장비로 ASM은 네덜란드 노광 장비 글로벌 기업 ASML의 모태가 된 회사다. ALD 원천기술은 KAIST가 최초로 개발하여 국내기업 지니텍이 상용화했고, 지니텍을 ASM이 투자·인수하며 글로벌로 상용화한 성공모델의 우수한 사례이다. 특히, 반도체 장비 부품 국산화 비율을 70%까지 끌어올렸으며, ASM의 해외법인 중 국내 법인만이 제조뿐만 아니라 연구개발을 함께 운영하는 유



일한 법인으로 국내 반도체 기업과 상생협력을 지속해오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가 2nm(나노미터, 1nm=10억분의 1m) 미세 공정 진입을 위한 개발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그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ASM인 것으로 알려졌다. 화성시에는 세계 최대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 화성사업장과 반도체 업계 '슈퍼플'로 불리는 ASML이 들어서 있다. ASM 화성 제2제조연구혁신센터가 건립되면 ASML과 도쿄일렉트론코리아에 이어 글로벌 10대 반도체 장비 제조 회사 3곳이 입지해 명실상부 경기남부 반도체 클러스터의 핵심 도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SM의 제2제조연구혁신센터 투자 유치에 미국과 싱가포르 등 여러 국가에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약속했지만, ASM은 입지 조건과 여러 협력사들과의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할 수 있는 화성시로 최종 결정했다. 벤자민 로(Benjamin Loh) ASM CEO는 "화성시는 탁월한 근무환경에 따른 핵심인력 채용이 용이하고, 고객사와 협력사들 간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어 투자를 결정했다"며 지역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ASM 화성 제2제조연구혁신센터가 준공되면 경기남부 반도체 클러스터의 핵심 도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로 자리매김하고 화성시 관내 대학들과 연계해 반도체 인력 양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금일 기공식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정명근 화성시장, 폴린 반 더 미어 모어(Pauline van der Meer Mohr) 에이에스엠 이사회 의장, 벤자민 로(Benjamin Loh) 에이에스엠 최고경영자(CEO), 김완기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 신미숙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경희 화성시의회의장, 김용길 에이에스엠 엘코리아 회장, 요아나 도너바르트(Joanne Doornewaard) 주한네덜란드 대사, 김태형 인베스트 코리아 대표 등 150여 명이 함께했다. 양시현/기자

이천시, 여섯번째 '김경희 시장의 사이다 토크' 대월면 현장 방문!

'김경희 시장의 사이다 토크'

김경희 이천시장이 23일 여섯 번째 '김경희 시장의 사이다 토크'를 위해 대월면에 방문하며 현장중심 행정을 이어나갔다. 먼저 김 시장은 대월면 초지리에 있는 도시계획도로 공사현장에 방문하여 공사 중단으로 인한 인근 기업 및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그리고 ㈜에이알티플러스로 이동하여 강기태 대표 및 임직원들과 환담을 진행하고 생산현장을 투어하며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이후 대월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한 10명의 시민을 만나는 현장시장실을 운영했고, 도시계획도로 건설요청 등 도로·체육·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12건의 건의사항이 접수됐다. 특히 초지리에 거주하는 주민 A씨는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물류창고와 대형화물들의 이동증가로 먼지, 소음 등 환경문제 및 사고위험에 대한 거주민 불편을 호소했다. 이에 김 시장은 물류창고 허가시

거주민의 불편사항에 대해 꼼꼼히 체크하고 진출입로 등 기반시설에 대한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대월면 주민 B씨는 "시장이 직접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을 공감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에 감동받았다"라며, "이천시의 이러한 소통 방법이 지속되길 바란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김 시장은 "오늘 만난 대월면 시민분들의 참여와 환영에 감사함을 느낀다"라며, "제안해주신 소중한 건의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을 운영하겠다"라며 강하게 다짐의 말을 전했다. 다음 '사이다 토크' 7회는 6월 13일에 창천동, 8회는 6월 27일 신둔면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운영은 사전 예약제로 진행되며 민원사항과 건의사항이 있는 시민은 개최 3주 전까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총무팀과 홍보담당관 홍보기획팀으로 접수하면 된다. 이성용/기자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고양시를 도심항공교통산업 메카로 조성"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고양시를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 산업의 메카로 조성하겠다고 피력했다. 이동환 시장은 24일 일산서구청 가와지대강당에서 '찾아가는 현장 간부회의'를 열고 "최근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UAM 2단계 실증노선사업에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고양시가 최종 확정됐다"면서 "이로 인해 고양시가 UAM산업에 한 발 앞서게 됐다"고 밝혔다. UAM은 도심형 항공기를 활용해서 사람과 화물을 수송하는 항공교통체계로, 국토교통부가 2025년 말 상용화를 목표로 실증사업을 위해 지난 12일 수도권 2단계 실증노선 구축지역을 확정했다. 2단계는 고양 킨텍스에서 김포공항과 여의도로 이어지는 노선으로, 고양시는 한강을 끼고 있는 이점을

최대한 살려 UAM산업의 최적지로써 가치를 증명했다. 이착륙장(버티포트)은 대화동 킨텍스 일원 약 1만 8,000㎡에 구축한다. 이 시장은 이와 관련해 "UAM산업은 무궁무진한 성장 가능성이 있는 미래 먹거리"라면서 "항공모빌리티산업 선점을 위해 전 세계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자치단체 중 고양시가 한 축을 담당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UAM산업은 인공지능, VR, 빅데이터,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등 4차 산업의 융복합을 통해 대기업과 글로벌 기업을 집적시킬 수 있는 기회"라면서 "이번 UAM 실증사업으로 미래 산업 역량기반 강화는 물론, 시 역점사업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 시장은 "내년 UAM 실

증사업에 필요한 산학협력과 인허가 등 기반조성에 역량을 집중하고, 고양시가 UAM산업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산업생태계 조성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시장은 "본인 부서 업무뿐만 아니라 고양시 주요시책에 대해 철저히 파악하고 있어야 왜곡이나 소문에 대해 대처할 수 있다"며 "구청과 동에서도 시청 성과나 신청사 이전 문제, 복지정책 등 중요한 시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확하게 이해하고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숙지해 달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창릉천과 스마트시티 등 선정된 공모사업은 사업 규모도 크지만 시민들과 밀접한 사업"이라

면서 "각종 공모사업 도전이나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면서 공직자의 '적극행정'을 주문했다. 이 시장은 특히 민원인이 36년간의 과제를 풀 수 있도록 실마리를 제공한 고양시 직원들을 칭찬하기 위해 국민신문고에 올린 글을 소개하면서 "시장으로서 우리 공직자들이 시민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자랑스럽게 느껴진다"며 "부서장을 중심으로 시민감동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일산동구 시민봉사과와 중산1동 직원들은 민원인이 행방불명된 아버지의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등본 상의 주민등록번호 불일치로 인해 곤란한 상황에 놓이자, 민원인 가족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큰



도움을 줬다. 이 시장은 민선8기 출범 1년 성과 홍보 및 추진계획 점검도 주문했다. 이 시장은 "지난 1년간 고양시가 해야 할 일을 설계하고 고민하면서 밑그림을 그렸고, 시청혁신을 통해 자족도시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우리가 추진할 사업들에 대해 추진사항과 향후계획, 기대효과 등 핵심 위주의 전략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그동안의 변화와 성과를 정리

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에 선제적으로 홍보하고, 새롭게 진행 중인 사업들이 왜곡되지 않고 제대로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일산서구 업무보고에 서는 가와지쌀 관련 특화사업 등 역점사업과 JDS 등 개발예정지구 내 농지 보전 방안 마련, 일산서구 상습침수지역 배수 개선 대책 마련 등 현안 및 건의사항이 논의됐다. 한영기/기자

박승원 광명시장, 2023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 수상

박승원 시장 "사람 중심의 경제, 시민과 함께 사회적경제 친화도시 만들 것"

박승원 광명시장이 '2023년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회에서 지방자치단체장 부문 지역 활력 증진 분야 최우수상을 받았다.

박 시장은 이번 수상으로 2019년 자치분권 혁신 분야, 2021년 분권자치 강화 분야, 2022년 정치문화 혁신 분야에 이어 3년 연속, 통산 4번째 '거버넌스 지방정치 대상'을 수상했다.

24일 광명시에 따르면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은 지방 정치에서 자치분권 활동을 발굴, 전파하고 유능하고 건강한 지방정치를 선정한 상이다. 사단법인 거버넌스센터가 주최하고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이 후원한다.

이 상은 지방단체장 부문과 지방의원 부문으로 나뉘며 ▲주민 생활 편의 확대 ▲행정 효율성 제고 ▲공동체 역량 증대 ▲지역 활력 증진 ▲지역문화 가치 창출 ▲분권 자치 강화 ▲미래 개척 ▲정치문화 혁신 8개 분야를 평가, 시상한다.

박승원 시장이 수상한 '지역활력 증진 분야'는 중대한 지역문제를 해결하거나 사회적경제 기반 확대·활성화, 지역재생 등을 통해 지역 활력을 증진에 기여한 지방정치인을 선정하는 분야이다.

박 시장은 사회적경제 지원과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 정책을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 추진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사회적경제가 시민의 삶 속에 스며들어 함께 잘 사는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유경제, 공정무역, 공정관광, 탄소중립, 도시재생, 평생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을 연계하고 모든 과정에 시민참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명시는 '사람 중심의 따뜻한 경제!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사회적경제 친화도시 광명!'을 캐치프레이즈로 삼아 2021년 7월 사회적경

제과를 신설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정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사회적경제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자립을 위한 재정지원과 활성화 지원사업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한 융복합 사업 ▲사회적경제 인식확산 시민교육 등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광명형 소셜벤처 기업 육성사업에 3억 원을 지원하고, 올해 ESG 친화형 소셜벤처 기업 육성사업에 6억 원을 투입하는 등 사회적경제 스타트업도 꾸준히 육성하고 있다.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 우선구매, 부서별 1:1 상담회 및 우수부서 시상, 사회적경제 페스티벌, 사회적경제 나눔장터, 광명가치물 운영 등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의 홍보와 판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 밖에도 사회적경제 클라우드 펀딩 지원 사업, 창업 교육 및 컨설팅, 사회적 협동조합 세무회계 기강 수수료 지원, 사회적경제 갤러리 및 사회적경제 홍보관 '더가치홀' 운영, 광명 사회적 가치 지표 개발,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노력으로 사회적경제 기업이 매년 15~30%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2023년 4월 말 현재 광명시 사회적경제 기업은 인증 사회적기업 13개, 예비 사회적기업 14개를 포함해 148개로 사회적경제와 신설 이전인 2021년 1월 말 기준 117개보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사회적경제 확산 토대 마련을 위한 인식확산 교육도 1천 회 이상 실시했다. 교육 내용은 사회적경제, 공정무역,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필요성 등이다.

지금까지 이 교육에는 유치원생, 경로당 어르신, 학생, 공무원, 정치인에 이르기까지 시 전체 인구 28만 9천887명의 13.4%인 3만 8천777명이 참여해 사회적경제, 공정무역, 탄소중립 필요성을 알리고 시민 인식을 개선하는 데에 크게 기여했다.

윤용민기자

경기도, 세계적 반도체 장비기업 에이에스엠(ASM), 1,350억 원 투자해 경기도 화성에 연구·제조시설 대폭 확충

김동연 지사, 24일 에이에스엠(ASM) 반도체 장비 연구 및 제조시설 기공식 참석

세계적 첨단 반도체 공정장비 제조기업 에이에스엠(ASM)이 화성 동탄에 1,350억 원을 투자해 새로운 연구 시설과 제조시설을 대폭 확충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4일 화성시 동탄로에 위치한 에이에스엠코리아 기공식에 참석해 "에이에스엠은 가장 모범적인 투자기업 중 하나"라며 "에이에스엠을 비롯해 기존 반도체 생산 단지, 인공 소부장 기업과 펩리스 기업들이 연계되면 경기도는 명실상부한 세계적 반도체 메카로 완성될 것이다. 경기도가 도울 일이 있으면 모든 힘을 기울여서 돕겠다"라고 환영의 마음을 표했다.

벤자민 로(Benjamin Loh) 에이에스엠 대표(CEO)는 "한국에서의 활동은 에이에스엠 성장에 매우 중요하다. 화성의 시설은 한국의 주요 고객은 물론 플라즈마 원자층 증착장비(PEALD) 사업을 위한 글로벌 센터 역할을 한다. 한국 연구 개발팀이 개발한 기술은 전 세계 첨단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에이에스엠은 네덜란드 알메르에 본사를 두고 있는 세계 반도체 장비 10위 기업 에이에스엠아이(ASMI)의 새로운 이름이다. 전 세계 14개국에 3,300명의 종업원과 반도체 장비 분야 특허 1,200여 개를 보유하고 있다.

2015년 경기도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후, 2019년 1월 화성시 동탄 첨단 산업단지 내에 870억 원을 들여 반도체 증착장비 연구·제조시설에 투자해 440명을 고용한 바 있다. 에이에스엠 코리아는 기존 시설 바로 옆 7,400㎡(2,200평) 규모 부지에 2025년까지 1,350억 원을 추가 투자해 반도체 증착장비 연구·제조시설을



▲ 24일 오전 에이에스엠케이에서 열린 네덜란드 ASM 기공식 행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벤자민 로 ASM CEO, 폴린 반데메르 모어 ASM 의사회 의장, 김용길 에이에스엠 코리아 회장, 김원기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 요아나 도너버르트 주한네덜란드 대사, 정명근 화성시장 등이 기공식 버튼 세례모임을 하고 있다.

설립하고 200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할 계획이다.

이번 투자는 김동연 지사가 에이에스엠 본사와 한국지사 양측 대표를 만나 투자 결정을 적극 독려한 후 불과 몇 달 만에 결정된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해 10월 폴 베르하겐(Paul Verhagen) 에이에스엠 재무총괄이사(CFO)를 만난 데 이어 11월에는 '미래성장 혁신기업 대상 투자유치 라운드테이블 미팅'을 열고 에이에스엠 코리아 김용길 회장을 초청했다. 김 지사는 한국 투자자의사를 보인 베르하겐 재무

총괄이사와 김용길 회장에게 경기도 투자를 적극 권유했는데 실제 기공식으로 이어졌다.

에이에스엠의 경기도 투자는 전세계에 진출한 에이에스엠 시설 가운데 유일하게 연구개발 기능과 제조시설이 결합된 시설이다. 에이에스엠 코리아의 반도체 증착장비는 국내 기업이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에이에스엠이 상용화한 기술이다. 도는 에이에스엠 코리아가 소재와 부품의 70%를 경기도 내 중소기업과 협업해 생산할 예정이어서 도내 기업과의 상생 협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이날 기공식에는 폴린 반데메르 모어(Pauline van der Meer Mohr) 에이에스엠 이사회 의장, 벤자민 로 에이에스엠 최고경영자(CEO), 정명근 화성시장, 김원기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 신미숙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화성시의회 김경희 의장, 김용길 에이에스엠 코리아 회장, 요아나 도너버르트 대사, 김태형 인베스트 코리아 대표 등 150여 명이 함께했다.

조혜영기자

인천환경공단, 에코 비전(ECO VISION) 2023 워크숍 개최

인천환경공단(이사장 최계운)은 24일 문학경기장 그랜드오스티움에서 'ECO VISION 2023' 전직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창립 16년을 맞아 '최고의 기술, 과감한 도전, 확실한 성과'라는 새로운 비전을 통해 인천 유일의 환경전문공기업으로서 인천 환경을 미래로 600여명의 직원들과 함께 만들어가고자 마련했다.

24시간 환경기초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단 특성으로 인해 워크숍은 3일간 나눠서 진행된다.

1일차에는 환경부 서해협 수자원 관리과장의 환경정책 특강과 초록소프트 김명락 대표의 빅데이터 활용 특강으로 준비하여, 국가 환경정책과 연계한 앞으로 공단의 방향에 대한 직원 토의, 빅데이터 기반 시민 환경서비스 제공을 위한 환경플랫폼 구축 방향에 대한 교육이 이어졌다.

2일차에는 환경부 류연기 물환경정책관의 국가 물환경정책 특강과 메타로 유진 대표이사의 메타버스에 대한 특강으로 급변화하는 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시간으로 준비했다.



특히 이날에는 유정복 인천광역시시장도 워크숍에 방문하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인천시민들을 위해 깨끗한 환경제공에 애써주셔서 감사한 마음을 전할 예정이다.

마지막날에도 환경부 박재현 물환경정책관의 통합 물관리 정책 특강과 글로벌미래교육원 조용호 원장의

챗GPT 특강으로 4차 산업과 연계한 환경기술 적용방법에 대한 직원 교육 시간으로 마련했다.

이밖에도 워크숍 준비부터 직원들이 함께한 브이로그 공모전, 워크숍 희망 댓글 릴레이 이벤트 등을 통해 전 직원이 하나가 되는 시간이 될 예정이다.

공단 최계운 이사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인천 환경의 미래를 책임지고 선도하는 인천환경공단으로 도약의 시간이 됐으면 한다."면서 "300만 인천시민이 공감하고, 공유하는 친환경 사회, 초일류 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종남기자

이현재 하남시장, 기업인협의회와 함께 5월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진행



하남시는 23일 이현재 시장을 비롯한 기업인협의회장 및 회원 등이 신장·덕풍전통시장과 석바대 상점가를 방문해 '5월 전통시장 가는 날'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전통시장 장보기에 나선 이 시장과 기업인협의회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3시부터 2시간 동안 온누리상품권과 하남시 지역화폐인 '하머니'를 이용해 다양한 반찬거리와 과일 등을 구입하며 장바구니에 물건을 채웠다.

또한 이 시장은 얼마 전 화재가 발생했던 덕풍시장 현장을 방문해, 해당 부지에 대한 쓰레기 처리와 소화기 추가 지원 요청을 해결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날 행사에는 하남 탐카페 커뮤니티인 '하남올맘' 및 지역

내 취약계층과 독거노인을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는 '신장라이온스클럽' 회원들과 함께 신장전통시장을 방문한 고객과 상인들의 무더위를 식힐 수 있도록 화채 300인분을 준비, 무료 나눔행사를 펼치며 눈길을 끌었다.

이현재 시장은 "작년 11월부터 하남시는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함께 매월 1회 '전통시장 가는 날' 장보기 행사를 진행하며 상인들의 어려움을 청취해 해결하는 등 시장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앞으로도 전통시장 환경 개선 등 다양한 상권 활성화 사업을 통해 지역 상권 살리기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박강호기자

안성시 공직자 5월 '우수행정사례 혁신투어'를 다녀오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구도심 재생사업, 예당호 관광단지 및 전통시장 활성화 현장 방문

안성시는 5월 19일부터 20일까지 관련 공직자 20명이 참여한 가운데, 국내 우수 행정사례 혁신 투어를 실시했다.

이번 혁신투어 대상지는 경북 상주시(스마트팜), 충남 공주시(도시재생), 예산군(호수관광 및 전통시장 활성화)이다.

현재 상주시는 2018년 스마트팜 혁신밸리 농식품부 공모에 선정된 이후 2022년 시설 준공을 마쳤다.

혁신밸리 내부에는 청년농촌 보금자리도 함께 조성해 청년의 정착을 돕고 있으며, 동시에 농업인 대상 임대형 스마트팜도 운영 중이다.

공주시는 2014년부터 도시재생 사업에 착수, 골목길 재생사업을 시작으로 하여 제민천 생태하천조성사업과 구도심 일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이후 청년지원센터를 개관하는 등 구도심 청년인구 유입에 대한 후속 정책에도 빠르게 대응하

고 있다.

예산군은 백중원 대표의 ㈜더본코리아와 함께 전국 최초 민간협력 외식창업교육기관을 설립, 외식창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시장 내 빈 점포 활용을 통한 창업지원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예산군은 예당호에 길이 약 400m의 출렁다리를 준공한 이후 해당 지역에 모노레일과 느린호수길

및 호수 전망대 조성으로 일대를 하나의 연계된 관광단지로 발전시키려는 예당호 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안성시는 금번 견학한 우수행정사례를 바탕으로 현재 추진 중인 관련 사업 부서의 팀장 및 사업 담당자를 한자리에 모아 간담회를 진행하고, 향후 우리 시 적용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양시현기자

경북 의성군 현대미술관 공예 전시 실시

의성군 안계미술관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주관하는 공식프로그램에 선정되어 2023년 공예주간 '치유공간' 전시를 5월 23일부터 6월 17일까지 진행한다. 국내 최대 규모로 열리는 공예 축제인 공예주간은 누구나 일상에서 친숙하게 공예를 향유하고 손으로 사물을 창작하는 과정을 즐길 수 있는 행사이다.

2023년 공예주간 '치유공간'은 안계미술관 전시장의 정체성인 추억이 담긴 공중목욕탕을 기반으로 기획됐다. 때를 씻어내고 이웃들과 모여 몸과 마음을 치유했던 40년 역사의 대중목욕탕, 지금은 목욕탕의 기능은 상실했지만 정든 공간에 새 생명을 불어넣듯 미술관으로 재탄생한 전시장을 홍보하고 예술로서 다시 치유의 역할을 부여하고자 한다. 도예, 섬유, 금속 등 다양한 작품이 선보이며 8인의 작가 김지용, 김대운, 서지혜, 서하나, 이명진, 정해강, 조예린, 한은석을 소개한다.

'치유공간' 전시에 기획자로 참여한 김지용 작가는 "버려진 캔, 폐섬유, 일회용품 등의 재료가 탈바꿈하여 오늘의 새로운 쓰임을 제안하는 관심을 공유하고 싶었다"라며, "이번 전시에서 여덟 명의 작가들의 작품을 통해 아름답게 보이는 공예 작품에서 진정한 휴식과 치유의 메시지가 전달되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안계미술관에서는 2023년 공예주간 '전국공예자랑'을 맞이하여 5월 20일 전시 환영회로 축제와 연계한 미술 체험, 플라마켓, 버스킹 공연을 선보였으며, 5월 27일 울정호 청년창작촌에서 오후 2시부터 시작되

는 염색, 직조, 펀치니들, 페인팅, 힐링 요가를 포함한 원데이클래스 체험 인원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수업 문의는 안계미술관 홈페이지 또는 전화를 통해 가능하다.

윤근수/기자

영양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제2기 예비액션그룹 기초역량 아카데미 교육 실시

5월 2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영양군 종합복지회관 2층 강당에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액션그룹 2기 교육생 40여명을 대상으로 기초역량 아카데미 교육을 진행했다.

영양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총사업비 70억원을 투입해 '별첨지 영양공동체 육성'을 비전으로 현재 기본계획 용역 마무리 단계이며, 농식품부 본격적인 승인 후 금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2월 1기 예비액션그룹 기초역량 아카데미 교육에 이어 5월 24일을 시작으로 2기 예비액션그룹 본교육을 진행한다.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은 지역의 유·무형 자원과 민간조직을 활용 영양군이 보유한 우수한 지역자원의 활용가치를 극대화한 후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고, 지역 공동체 주도의 자립성장을 실현하여 주민역량을 배양해 나가는 사업으로 향후 최종 선정된 액션그룹을 중심으로 지역 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사업을 구상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2기 예비액션그룹 기초역량 아카데미 교육은 본격적인 농번기를 감안하여 5월 24일 2회차 교육(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6월 14일 5회차를 마지막으로 짧은 기간 내에 집중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내용은 기 실시한 선진지 견학(1회차)에 이어 신활력플러스 사업 소개, 농촌정책 이해, SNS 홍보마케팅 이해 및 실습, 사회적 경제조직 이해, 주민참여 사업 교육 등 다양하고 알찬 교육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 기초역량 아카데미 교육을 통해 예비 액션그룹의 역량을 강화하여 궁극적으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을 발굴하여 법인으로 전환하고, 각종 정부지원 공모사업 통한 민간조직의 완전자립화로 인구감소로 소멸위기에 놓여 있는 영양군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울릉군, 도화새우 20만마리 방류

고부가 품종 방류로 수산자원 회복 조기실현 및 어업소득증대

울릉군에 따르면 경상북도 수산자원연구원에서는 수산자원 회복과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일명 '독도새우'로 널리 알려진 도화새우 20만마리를 울릉·독도해역에 5월 23일 방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방류한 도화새우는 지난해 12월 포란 된 어미로부터 부화하여 약 6개월간 사육한, 전장 약 1.5~3cm의 건강한 개체이다. 또한 자연 적응 및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선상에서 수심 약 50m 이하의 암초지대에 방류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방류하며, 이후 성장 단계에 따라 서식에 적합한 해역으로 이동하게 된다.

또한 독도새우류(도화새우, 물렁가시뽀새우, 가시배새우) 3종 중 가장 대형종으로 최근 수요가 급증하면서 자원 감소 등으로 어획량이 적어 kg당 20~30만원의 고가에 거래되는 동해안의 명품 새우류이다. 체색은 황색색으로 머리 부분에 흰반점이 있으며, 살이 단단하고 단맛과



감칠맛이 뛰어난 것이 특징이다. 그간 연구원에서는 고부가가치 품종의 수산자원을 회복하고 건강해진 해양 생태환경을 조성하고자 국내 최초로 '2013년에 물렁가시뽀새우'를 시작으로 '2018년에는 도화새우' 대량 증자생산 연구·개발에 성공하

여 지금까지 총 182만마리를 울릉·독도 및 왕돌초해역에 방류했다. 이번 도화새우 방류는 울릉도·독도 해역을 포함한 환동해역의 고부가 수산자원의 증 보존 및 복원의 의미가 있다.

정현중.조강제/기자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 오프라인 열띤 '홍보전'

경주시 SNS알리미, 포항시와 협력해 현안사항 및 관광 콘텐츠 홍보

경주시 SNS알리미가 지난 24일, 포항을 찾아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 팸투어를 실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팸투어는 오는 2025년 한국에서 열릴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개최도시로 경주가 최적지임을 홍보하기 위해 기획됐다.

먼저 이날 오전 포항시의 핫스팟 '스카이워크'를 첫 시작으로 주요 관광지 3곳을 차례로 돌며 경주의 APEC 정상회의 유치 도전을 적극 홍보했으며, 이어 오후에는 포항시 행정선 '연오세호호'를 타고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 염원을 기원하는 구호를 외치는 퍼포먼스를 펼치기도 했다.

경주시 SNS알리미는 소셜미디어를 활발히 운영하며 유익한 시정 정보와 지역 소식 등을 SNS를 통해 시민들에게 제공해 주는 시민 그룹으로서 지난해 태풍 힌남노가 상륙했을 때 실시간으로 정보를 알리며, 시민들에게 큰 도움을 제공하기도 했다.

또 맛집소개와 관광정보 등 소중한 지역소식을 공유하면서 큰 인기



를 끌고 있다. 경주시 윤철용 홍보담당관은 "세계유산이 집적된 도시에서 처음으로 APEC 정상회의가 열린다면 세계유산 가치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커지고 경주시는 물론 인근 지자체인 포

항시의 품격도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포항시 SNS알리미도 올해 하반기 경주를 방문해 경주시 문화·관광 콘텐츠를 체험 홍보할 예정이다.

윤타용/기자

미래 주역의 중심, 아동이 행복한 구미

초록우산재단 경북지원본부, 약정후원금 6억원 전달

구미시는 23일 국제통상협력력에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북지역본부와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6억원 상당의 후원금을 지원하는 약정식을 열었다.

이날 약정식에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본부장 및 초록우산 중고액후원자모임인 구미그린리더클럽 박병수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어려운 환경속에도 아동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후원을 약속했다.

박병수 어린이재단 경북지역본부장은 "약정식을 통해 시와 관계를 더욱 단단히 하고 다채로운 사업을 할 수 있게 돼 앞으로가 기대된다"며 "아동복지 증진에 열과 성을 다하겠다"고 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취약한 상황에 처한 아동의 삶을 개선하고 권리를 지키기 위해 설립된 아동복지전문기관으로, 지난해 구미시 정기후원자 2,732명으로부터 2억5천400만원을 모금했으며, 151명의 아동에게 외부지원금 포함 6억4천2백만원



의 정기후원과 의료비 및 주거비 등을 지원했다. 김호섭 구미부시장은 "다양한 후원활동을 하고 있는 초록우산재단 경북지역본부 및 후원회 관계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 시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및 구미그린리더클럽후원회와 활발히 활동해 미래의 주역인 아동을 중심으로 행복한 구미시가 되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구미시 청년CEO 12명으로 구성된 구미그린리더클럽은 회원들이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의 중고액후원자 모임에 소속해 있으며, 2022년 8월 창립해 지역학교 양심우산 전달 및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후원품을 전달하고 있다. 지난 5월5일 어린이날에는 어린이 성장지원을 위한 한 약 500만원을 지역아동센터에 후원하는 등 꾸준히 활동하고 있다.

김동현/기자

영덕군 영덕시장현대화추진단, 이틀간 농촌봉사활동 전개



영덕군 영덕시장현대화추진단은 지난 22일과 23일 이틀간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수면 창수리의 사과재배 농가를 방문해 농촌 일손돕기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봉사활동에 참여한 20여명의 직원들은 제때 사과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수확량에 큰 영향을 미침을 감안해 우천 상황임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구슬땀을 흘렸다. 냉해 피해 농가 순찰을 위해 현장을 방문한 김광열 영덕군수는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일손은 부족하기 지속적으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직원과 기관·사회단체를 연계해 일손돕기 활동을 펼쳐나가는 것은 물론 힘든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정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봉화군, 전통마을숲 복원으로 산림 문화자산 보존

4억 원 예산으로 봉화읍 건정 전통마을숲 등 9곳 사업 시행



봉화군은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전통마을숲을 대상으로 역사적·문화적 기능 회복을 위해 전통마을숲 복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도시화와 복토 및 답압, 입목간 경쟁으로 황폐화되고 있는 전통마을숲 7곳에 복원을 추진한 바 있다.

올해에도 4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봉화읍 건정 전통마을숲 등 9곳을 대상으로 외과수술, 가지치기 및 수목정리, 병해충 방제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전통마을숲은 지역의 전통문화가 녹아 있는 문화공간으로 주민의견을 청취해 설계에 반영하는 등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했으며복원이 마무리되면 지역주민을 결속하는 쾌적한 화합의 장을 제공하고 전통숲의 생태적 건정성과 지속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봉화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주민과 함께 해온 전통마을숲과 노거수를 체계적으로 복원 및 관리해 산림문화자산 보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한울본부, 온배수 이용 양식 어패류 5만 미 방류

- 한울본부, 강도다리 3만 미와 전복치패 2만 미 방류행사 가져

- 박범수 본부장, "치어·치패가 잘 자라 어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혀

한국수력원자력(주) 한울원자력본부(본부장 박범수, 이하 한울본부)는 지난 23일, 울진군 북면 석호항 인근 연안에서 월성원전 온배수로 키운 강도다리 3만 미와 전복 치패 2만 미 방류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한울본부장, 대외협력처장을 포함한 한울본부 직원들 및 석호·나곡 어촌계장 등이 참석하였다.

참석자들은 북면 석호항 인근 바다에 강도다리 치어 3만 미를 방류했고, 전복 치패 2만 미는 한울원전과 인접한 석호·나곡 어촌계에 제공해 해안 주변 암반에 부착하도록 하였다. 울진군 북면에 거주하고 있는 김대식 석호 어촌계장은 "한울원전의 아낌없는 동해안 수산자원 보존을 위한 크나큰 관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의 방류가 만선의 기쁨으로 돌아오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울본부는 지난 1999년부터 매년 온배수 이용 양식 어패류 방류사업을 시행하여 금년까지 총 262만 미



의 치어와 치패를 원전 인근 해역에 방류하여 어민과의 아낌없는 소통을 통한 동해안 수산자원 보존과 어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박범수 본부장은 "한울본부는 어민여러분들과 늘 동고동락하면서 여러분들의 애환을 들어 주고 이를 해결해 주는 한울본부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운을 떼면서

"이번 치어, 치패가 잘 자라 어민여러분들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윤근수/기자

영주시, 풍기인삼 소공인 경쟁력 높여줄 '복합지원센터' 개소

- 총사업비 92억 투입...경북 1호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

- 인삼 관련 시제품 개발, 성분 분석지원...소공인 자생력 강화 기대

영주시가 24일, 도내 최초로 소공인 복합지원센터를 개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영주시에 따르면 소공인 복합지원센터는 지역 특산물인 풍기인삼 관련 소공인들을 입체 지원하는 복합공간이다. 시는 2020년 6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조성사업을 시작했다.

소공인(小工人)은 노동집약도가 높고 숙련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소기업 중에서도 규모가 작은 기업이나 영세 자영업자로 풍기 지역에는 180여 개 업체의 인삼 관련 소공인이 있다.

시는 국비 25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92억 원(구축사업비 73억, 운영사업비 19억)을 투입해 지난해 12

월 풍기역 서부리 165-5번지에 센터 구축을 완료했다.

이날 개소한 소상공인 복합지원센터는 인삼성분 분석 및 시제품 개발을 위한 '생산동', 교육장, 스튜디오, 제품홍보 및 문화 공간을 갖춘 '홍보동', 저온저장고 역할을 하는 '창고동' 등 총 3개 동 1295㎡ 규모로 조성됐다.

센터는 가내 수공업 규모의 영세한 인삼 소공인들에게 인삼을 활용한 시제품 개발 및 성분 시험분석을 지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판로개척 등을 지원해 풍기지역 인삼 소공인의 자생력 강화 및 매출액 증대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시는 소공인 복합지원센터의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지난해 12월(재)한동해산업연구원(원장 전강원)과 협약을 체결해 향후 5년간 운영



을 위탁했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센터가 성공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경상북도 및 경북테크노파크 관계자분들과 지역 인삼

소공인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오늘 개소한소공인복합지원센터가 지역 내 인삼 관련 소공인의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윤근수/기자

예천군, 혁신 주니어보드 워크숍...정책 혁신에 기여

MZ 공직자들 대상 생활편의성, 문화관광 등 분야별 정책발굴 시도



예천군은 23일부터 24일까지 20대~30대 MZ세대 공직자들로 구성된 '혁신 주니어보드' 역량강화 워크숍을 진행했다.

젊은 직원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행정에 접목하기 위해 27명 5개팀으로 운영 중인 혁신 주니어보드는 지난 10일 발대식을 가졌으며 △생활편의성 △공간활력/재생 △인구·저출산 △환경교육 △문화관광 5개 분야에 대한 정책개발 및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발굴할 계획이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중앙부처 예산 및 공모사업 대응 방법, 사업계획

서 작성 등 교육을 받았으며 조직문화 개선 특강 등 예천군 행정조직의 혁신을 위한 기량을 다졌다.

또한, 전문 컨설턴트의 교육과 1대1 맞춤형 컨설팅으로 오는 7월까지 각 팀별로 선정한 분야에 대해 정책발굴을 완료하고 향후 군정에 반영할 방침이다.

김학동 군수는 "젊은 공직자들이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군정 발전을 위해 주니어보드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특특 튀는 아이디어로 예천군 행정 혁신에 앞장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영천시, 청소년 내고장 문화바로알기 탐방 나서

생동감과 역사가 살아 숨 쉬는 내고장 Love 투어

영천시는 24일 한국폴리텍대학 로봇캠퍼스 재학생 85명이 참가한 가운데 임고서원 및 관내 체험 명소에서 '청소년 내고장 문화바로알기 및 체험활동'을 실시했다.

영천시청년연합회(회장 윤진영)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타 지역 출신이 많은 로봡캠퍼스 대학생들에게 우리 고장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고 관심과 애착심을 키워 향후 영천에 정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문화해설사와 함께 영천시 대표 명소인 임고서원을 돌아보며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되새기고, 보현산땀 집와이어 및 영천전투메모리얼파크 시가전을 체험하는 등 '내고장 문화바로알기' 행사의 취지를 잘 살린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행사에 참가한 대학생은 "바쁜 대학 생활로 영천 지역을 돌아볼 시간이 없었는데 임고서원을 비롯해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명소 곳곳을 탐방할 수 있어서 영천의 역사와 문화를 알아가는 시간이 됐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대학생들이 우리 고장의 발전된 모습을 직접 보고 체험해 보는 시간을 통해 지역에 대한 관심도 제고에 도움이 됐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에서 미래를 펼칠 수 있도록 든든한 응원군이 되어 드리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9월에는 화산중학교와 성남여자중학교 재학생 150명을 대상으로 2회 체험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반식/기자

유네스코 영화 창의도시, 부산시-프랑스 칸 업무협약(MOU) 체결

5.22. 부산시-프랑스 칸 영화인력양성 및 영화관련 상호교류 증진 업무협약(MOU) 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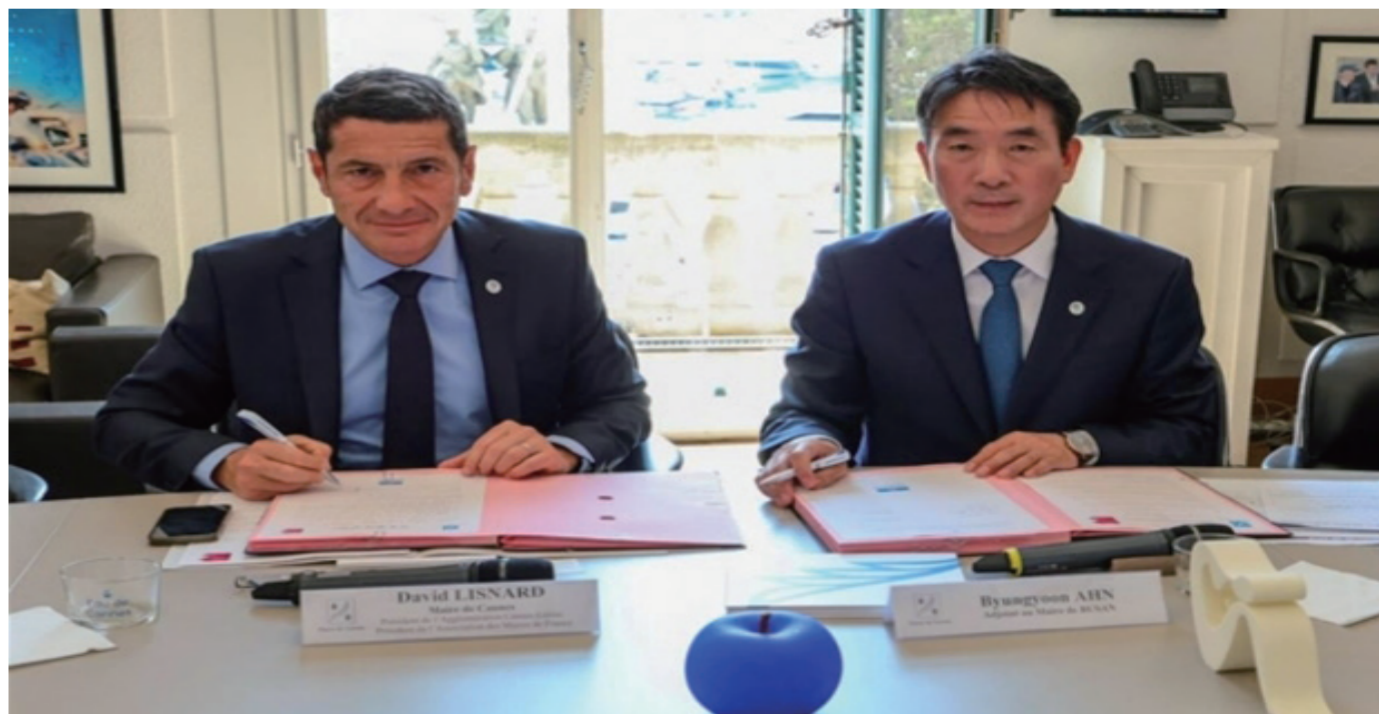
유네스코 영화 창의도시이자 세계적인 국제영화제의 도시인 부산시와 프랑스 칸이 두 손을 맞잡았다.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프랑스 칸(Cannes)과 지난 22일(현지시간) 영화인력양성 및 영화 관련 상호 교류 우호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아시아 최대 영화제인 부산국제영화제의 개최 도시 '부산'과 세계 최대 영화 축제 칸 영화제의 개최 도시 '칸(Cannes)' 모두 '유네스코 영화 창의도시'로, 두 도시는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해 급변하는 영화·영상콘텐츠 산업 환경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안병윤 부산시 행정부시장은 다비드 리나르(David Lisnard) 프랑스 칸 시장과 향후 유네스코 영화 창의도시 간 단편영화 제작 및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공유 등 영화관련 여러 분야에 대한 교류를 추진하기로 약속했다.

안병윤 행정부시장은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부산은 유네스코 영화 창의도시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9월 유네스코 창의도시 연례회의에 영화 창의도시의 '의장도시'로 도전하는 등 영화를 통해 글로벌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지난해 영



화의전당에서 개최된 '유네스코 영화 창의도시 부산 워크 국제 포럼' 기간, 칸과 다카르(세네갈)의 영화·영상 관계자 간 파트너십을 보여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모범사례가 인상적이었다"며 "현재 유네스코 영화 창의도시 위탁사업을 수행 중인 영화의전당과 더불어 칸과의 긴밀한 교류 협력을 통해 국제적 파트너십을 발전시키고, 다양한 문화산

업을 촉진해 많은 국가와 모범사례를 공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유네스코 창의도시는 지역 고유의 문화와 자랑거리, 애착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을 촉진해 새로운 문화에 자극과 투자를 초래하고, 창조적 문화활동과 혁신적 산업 활동의 연결을 통해 지역을 건강하게 하는 도시를 말한다.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는 각

도시의 문화적 자산과 창의력에 기초한 문화산업을 육성하고, 도시 간의 협력을 통해 경제적·사회적·문화적 발전을 장려를 목표로 한다. 영화 분야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회원도시로 부산은 2014년, 프랑스 칸은 2021년에 '유네스코 영화 창의 도시'로 지정돼 활동하고 있다.

송종진/기자

감동할 준비 마쳤다면, 경북 하늘 위로 이륙합니다!

- 창공에서 느끼는 스릴과 감동, 이색 열기구 체험행사 추진
- 다채로운 지역 축제 볼거리, 즐길 거리와 액티비티 체험 할인까지 제공

경북도는 쉽게 경험하기 어려운 열기구를 직접 타보고 스릴을 만끽할 수 있는 ‘오감만족 경북하늘여행체험’ 사업을 5월 영주, 상주, 봉화, 김천에서 10월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 축제나 행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열기구로 하늘을 날아보는 체험 기회와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처음 추진되며, 짬뽕이와 수상물놀이 체험 등 시군의 액티비티 체험시설 할인행사를 동시에 진행, 다양한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

첫 번째로 5.27~28일까지 열리는 영주 소백산철쭉제에서 열기구 5대가 선보이며, 서천여름축제(7.29.~31.)에도 열기구 3대를 운영해 축제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평생 간직할 추억거리를 안겨준다. 이와 더불어 웹툰방탈출게임(영주 웹

툰방탈출테마파크, 영주시 문수면 무섬로 180번길 19) 등 인기관광지 할인 혜택도 함께 지원할 예정이다.

6월에는 상주 경천섬에서 열리는 드래곤보트대회(6.3.~4.)와 수상레저페스타(8.11.~13.) 기간 중에도 3대의 열기구를 체험할 수 있다. 최근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상주하늘자전거(낙동강자전거이야기촌, 상주시 사벌국면 국제승마장로 39, 054-537-7123)서바이벌게임, 낙동강수상레저 등 인기 액티비티 체험관광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문체부 지정 문화관광대표축제인 봉화 은어축제가 열리는 7.29~8.5에도 3대 열기구가 8일간 봉화 하늘에 떠오른다. 특별히 한여름의 더위를 피해 야간 시간대에 산타와 은어 문양 등

으로 특별 제작한 열기구가 밤하늘을 환상적으로 수놓게 되며, 참가

자는 백두산 호랑이로 유명한 백두대간수목원(봉화군 춘양면 춘양로 1501, 054-679-1000) 입장 요금을 할인 받을 수 있다.

가을 오곡이 풍성한 10.6~8일까지 개최될 김천 포도축제에서는 가장 많은 6대의 열기구를 운영해 가을 하늘에 장관이 펼쳐지게 된다. 이외에 부항댐 짬뽕이와 스카이워크(김천시 부항면 신옥리 산23-2, 054-439-5030), 카드 등 하늘 위에서 뿐만 아니라 지상에서도 짜릿한 체험을 특별한 가격으로 즐길 수 있다.

김상철 문체관광체육국장은 “많은 관광객과 도민이 참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경북하늘여행

은 창공을 날고자 하는 가장 원초적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면서도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매력적인 이벤트”라며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향후 방문객들의 오감을 자극하는 특색 있고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를 늘려가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열기구 1회 탑승인원은 최대 5명(안전요원 1명, 승객 4명)이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열기구를 발출로 지면에 고정 후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는 계류 운행으로 진행하며, 사전점검 및 시험비행, 현장요원 배치를 통해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할 예정이다.

이번 열기구와 체험관광이 포함된 패키지 상품은 네이버, 쿠팡 등 온라인으로 사전 예약하고 있으며, 현장에서는 열기구 단독 체험권(1만원)만 판매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북하늘여행 고객센터(070-8276-1919, www.tourboss.co.kr)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윤근수/기자

대구·경북의 명산‘팔공산’... 23번째 국립공원 승격!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통과, 지역주민과 충분한 소통으로 이룬 성과

경북도는 5월 23일 제138차 국립공원위원회(위원장 유제철 환경부 차관)에서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 및 공원계획 결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팔공산국립공원 승격은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환경부가 지난 2년 동안 협력하고 지역주민과 충분히 소통해 이뤄낸 성과다.

이로써 팔공산은 2016년 태백산국립공원 지정 이후 7년, 도립공원 지정(1980년 5월)으로부터는 43년 만에 우리나라 23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된다.

팔공산 국립공원 구역은 경북 영천시 29.9km², 경산시 9.4km², 군위군 21.9km², 칠곡군 30.2km², 대구 동구 34.7km² 등 총 126.058km²이며, 기존 도립공원면적보다 0.826km²가 늘어났다.

보전가치가 떨어지는 공원경계부 능경지 등 훼손지를 해제하고, 보전가치가 우수한 공원경계부 공유림과 영천 은해사 소유의 사유림이 편입됐다.

한편, 우수한 자연생태자원과 함께 국보 2점과 보물 28점 등 총 92점의 지정문화재를 가져 역사문화의 보고로도 불리는 팔공산은 총 5,296종의 생물종이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존의 22개 국립공원과 비교하면 야생생물 서식 현황은 8위, 자연경관 자원은 7위, 문화자원은 2위 수준으로 자연·경관·문화적 측면에서도 보전가치가 뛰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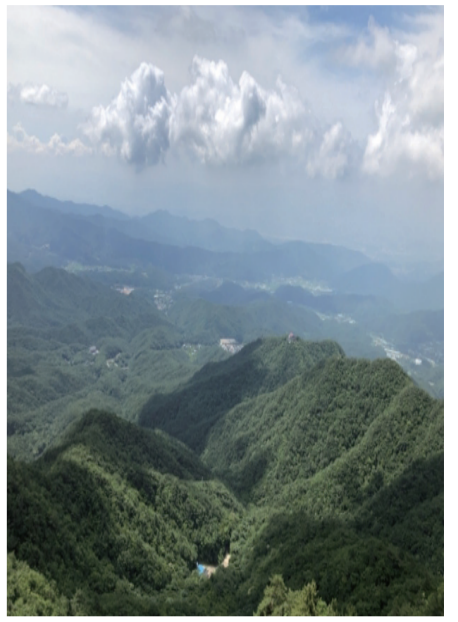
지난 2012년 대구·경북에서 팔공산국립공원 승격을 시도했으나, 충분한 지역감대 형성 부족과 강한 주민 반대로 무산됐다. 2018년 대구와 경북도가 ‘팔공산 국립공원 보전관리 방안 마련 연구용역’추진에 합의하면서 국립공원 승격이 다시 시작됐다.

대구·경북은 지난 실패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아 주민설명회 17회 개최, 10회에 달하는 현장방문을 통해 국립공원 승격 당위성을 설명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 결과, 지난 2021년 5월에 팔공산국립공원 승격을 환경부로 건의할 수 있었다.

이후 환경부는 2년여에 걸친 타당성 조사와 지역의견수렴을 통해 최종 국립공원 지정안을 마련했다.

지난해 12월에 주민공청회를 원활히 잘 마쳤고 이후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관할 시도지사, 시장·군수 의견청취, 중앙부처 협의를 마친 뒤, 이번 국립공원위원회 심의·의결로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이 최종 결정됐다.

윤근수/기자



팔공산이 국립공원으로 승격되면 팔공산의 우수한 자연·문화 자원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탐방객들에게는 높은 수준의 탐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난 2013년 무등산국립공원 지정으로 인한 광주·전남지역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2,754억 원에 달하고, 1,687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 바 있어 팔공산도 탐방객 증가, 지역관광산업활성화 등 대구·경북 지역경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5월 2일부터 팔공산국립공원 관리준비단을 출범했으며 올 하반기에는 대구·경북도와 공원관리 업무 인수·인계를 마무리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국립공원 승격 기념식도 개최할 계획이다.

또, 팔공산국립공원의 관리 방향성을 설정하고 지역사회 상생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팔공산국립공원 관리·운영 마스터플랜’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팔공산은 대구·경북의 혼과 정성을 품은 명산으로 도민의 염원을 담아 이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립공원으로 당당히 자리매김하게 됐다”라며, “국립공원 승격으로 높아진 브랜드 가치는 관광객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져 대구·경북의 또 하나의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환경부와 협력해 ‘팔공산국립공원 관리·운영 마스터플랜’을 잘 수립해 국립공원 승격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동소주, 일본서 K-소주 세계화 선봉 나선다

안동소주가 일본 시장 개척을 시작으로 K-소주 세계화의 선봉에 나선다. 안동시는 전 세계적인 한류 트렌드에 발맞춰 전통주 ‘안동소주’를 일본 시장에 진출시키고 나아가 우리 술의 세계화에 도전한다.

이상학 안동시 부시장, 경북도 관계자를 비롯해 안동소주 7개 생산업체 대표자들이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닷새간 일본 규슈 지방을 방문해 안동소주 홍보에 이어 일본 술 산업 동향을 살피고 벤치마킹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 부시장 일행이 방문한 규슈 지방에는 지역의 고구마, 보리, 쌀 등을 이용하여 증류식 소주를 생산하는 양조장 380여 개소가 밀집해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규슈는 일본 내 본격소주 생산량의 90%를 차지하는 일본소주 본고장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일본의 위스키·청주 등은 2022년에만 1,392억 엔에 달하는 수출을 달성하며 전년 대비 21.4%가 성장하는 등 일본 농식품 분야 수출효자종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일본 방문 첫날인 지난 22일, 이 부시장 등 방문단은 안동소주의 수출 불모지인 일본 시장 개척을 위해 안동소주 시음·홍보 행사 및 주류시장 시찰 등의 활동을 진행했다.

특히, 호텔 윈 인터내셔널 셀렉트에서 열린 ‘안동소주 in FUKUOKA



테이스팅 홍보 행사에서 선착순 현지 참가자를 모집해 안동소주를 선보이며 일본 시장진출의 가능성을 타진 했다. 민속주안동소주, 명인안동소주, 안동소주일품, 울소안동소주, 회곡안동소주, 진맥소주, 일엽편주에 대한 테이스팅을 진행하고, 안동소주를 테마로 한 안동여행 세미나도 개최했다.

이날 시음을 한 참가자들은 은은한 향과, 부드럽고 순한 맛에 큰 호응을 보였고 기회가 되면 안동소주 양조장으로 여행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이상학 안동시 부시장은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 될 잠재력을 지녔다”라며 “브랜드 인지도 제고, 해외바이어 상담, 주류박람회 참가지연 등 홍보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해 대한민국 증류식 전통주의 본류인 안동소주를 세계적인 명주의 반열에 올려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경주·울산·포항 해오름동맹, APEC 경주 유치에 한마음

22일 해오름동맹 상생협의회 정기회의에서 APEC 경주유치 퍼포먼스 가져

경주·울산·포항의 해오름동맹 3개 도시가 2025년 APEC 정상회의의 경주 개최에 공동으로 지지 선언했다.

해오름동맹 상생협의회는 지난 23일 경주시청 앞천홀에서 상반기 정기회의를 갖고 2025 APEC 정상회의의 경주 유치에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결의하고 공동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기회의는 주낙영 경주시장을 비롯해 김두겸 울산시장, 김남일 포항부시장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정기회의는 공동협력사업 추진성과 보고, 도시발전 전략 연구 용역 착수보고, 상생발전 모델 정립, APEC 경주유치를 위한 퍼포먼스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지지 선언에 참석한 경주·울산·포항의 세 단체장과 간부 공무원들은 먼저 대형 LED 터치 퍼포먼스로 유치 역량을 한곳으로 모았다.

이어 ‘가장 한국적인 도시 경주! 한국을 넘어 세계로! 2025 APEC 정상회의는 경주에서’ 라는 문구가 적힌 손 피켓을 들고, 경주가 정상회의 개최도시로 최적지임을 밝히고 함께 힘을 합치기로 약속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APEC 정상회의를 경주에 유치하는 것은 경주의



미래 백년대계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지방화 시대를 맞아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며 “APEC 경주 유치의 당위성을 함께 공감하고 공동으로 지지 선언을 해 준 해오름동맹 도시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SMR 국가산단 유치를 비롯해 문무대왕과학연구소, 양성자가속기센터, 중수해체연구원 등 우리의 첨단 과학 분야와 함께 울산의 자동차 및 중공업, 포항의 철강

분야 등을 아우르는 산업시찰 프로그램을 통해 APEC 회원국에게 대한민국의 발전상을 소개하기에 매우 용이할 것”이라며 APEC 경주유치에 힘을 모아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

한편 해오름동맹은 밀접한 생활권인 3개 도시 울산, 포항, 경주가 울산~포항 간 고속도로 개통을 계기로 지난 2016년 6월 결성된 이후 다양한 해오름 상생협력 공동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윤태용/기자

강진군, 손 모내기로 전통농업 명맥 살린다 병영면, 국가중요농업유산 권역 손 모내기 개최



강진군 국가중요농업유산 보전협의체가 23일, 병영면 박동리 일원에서 전통문화를 계승하기 위한 손모내기 재연행사를 개최하고 풍년 농사를 기원했다.

이날 행사에는 협의체 회원과 주민 관계자들이 참여해, 2시간 동안 약 300m2의 논에 못줄을 띄고 모를 심었다. 또한, 모내기를 하며 지역 농민 '모심기 노래'도 함께 불러 사라져가는 전통농업에 대한 명맥을 잇고 문화를 살리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강진군 농업유산 주민협의체는 국가중요농업유산 제16호로 선정된 연방죽 생태순환수로 농업시스템의 보전 및 계승을 위해 설립된 주민자치기구로, 겨울에는 병영·작천면의 연방죽에서 진행되는 고유의 '가래치기 행사'도 주최하고 있다.

행사에 참여한 주민협의체 송용백 회원은 "주민협의체는 앞으로 관내 초등학교와 연계해 손모내기와 벼수확을 함께하는 농촌체험 학습활동을 계획하고, 겨울철 인근 연방죽에서 실시하는 가래치기 행사에도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주유호/기자

진도군, '진도아리랑 시네마' 26일 재개관



진도군의 작은 영화관인 '진도아리랑 시네마'가 오는 26일 재개관한다. 지난 2017년 7월 개관 이후 문화시설 기반이 갖춰지지 않은 농촌지역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작은 영화관은 군민들의 문화 감성을 해소해주는 일등공신을 했다.

하지만 코로나-19를 겪으며 3년동안 관람객이 크게 줄어들고, 대형 영화관 대비 저렴한 관람료로 불안정한 수익구조로 위탁운영에 대한 어려움이 지속돼 지난 4월 1일부터 임시 휴관이 결정됐다.

군에서 직접 운영을 결정하고 인근 도시로 나가 비싼 관람료를 부담해 문화생활을 하던 군민들의 불편함이 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개관과 동시에 상영될 영화는

김영진/기자

다"고 밝혔다. 강진 연방죽 생태순환수로는 전남에서 두 번째로 넓은 한들 평야의 부족한 농수로 확보를 위해 병영·작천면 농경지 곳곳에 연방죽을 축조해, 물을 저장·보관하고 재사용해 농업환경을 극복한 전통관개 방식이다.

농업수로 사용한 물은 다시 민가의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전라병영성의 군사용 해자로도 흘러보냈으며, 연방죽에서 키운 연과 물고기로 생계를 이었다. 연방죽 생태순환수로는 한정적인 수자원의 효율성을 극대화 한 '물 나눔과 순환의 지혜'를 인정받아, 2021년, 국가중요농업유산과 세계관계시설물로 지정된 인류의 유산인 강진의 연방죽 생태순환수로는 단순한 농사 방식을 떠나, 유한한 물을 나누고 순환시킨 조상의 지혜가 담긴 소중한 자산"이라며 "앞으로도 손 모내기와 가래치기 등을 통해, 고유한 강진의 전통 유산을 면면히 계승하겠다"고 밝혔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세계관계시설물로 지정된 인류의 유산인 강진의 연방죽 생태순환수로는 단순한 농사 방식을 떠나, 유한한 물을 나누고 순환시킨 조상의 지혜가 담긴 소중한 자산"이라며 "앞으로도 손 모내기와 가래치기 등을 통해, 고유한 강진의 전통 유산을 면면히 계승하겠다"고 밝혔다.

남원시 지리산생태관광협의체, 제93회 춘향제 야시장으로 ECO FOOD 활동 시작

남원시의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구성된 '남원시 지리산 생태관광 협의체'가 제93회 춘향제 야시장을 통해 ECO FOOD를 첫 출시하며 활동을 시작한다.

ECO FOOD는 지난해 11월 전주대학교의 연구개발을 시작으로 지리산 한방수육, 지리산 산나물김밥 등 개발했으며, 이번 야시장에서는 개발된 ECO FOOD를 활용하고 야시장에 어울리는 메뉴를 추가 구성하여 판매될 예정이다.

남원시 지리산 생태관광지역협의체는 전라북도 생태관광 육성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구성됐고 이는 전라북도 생태관광의 특징인 "자립형 생태관광의 활성화"에 맞추어 지속가

능한 생태관광과 지역주민인 에코매니저 양성을 통한 자립형 생태관광을 지향하고 있다.

이 가운데 생태관광의 목표에 맞춰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고 지자체와 함께 이끌어가며 지역농산물을 활용하여 개발한 ECO FOOD를 통해 야시장으로 수익사업의 첫발을 내딛는다.

남원시 관계자는 "지역협의체의 수익사업의 첫 발돋움에 마중물이 되어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중심으로 구성된 생태관광지와 지역협의체의 활성화를 기대하며, 다양한 생태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어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남출/기자



함평엑스포공원, 국향대전 준비로 전시관 제한 운영

함평엑스포공원 일부 전시관이 오는 10월 개최되는 대한민국 국향대전 준비를 위해 제한 운영된다.

24일 군에 따르면 군민과 관광객들을 위해 무료로 개방했던 엑스포공원 일부 전시관이 국향대전 준비를 위해 관람이 제한된다.

친환경농업관, 황금박쥐전시관을 휴관하며, 다육식물관, 자연생태관, 수생식물관, 나비곤충생태관, VR체험장은(월요일 휴관) 연중 운영된다.

세계 각국의 아름다운 장미를 감상할 수 있는 장미원도 관람 가능

하다. 엑스포공원에서 올해 처음 선보이는 장미원에는 독일장미 26종, 영국장미 16종 등 형형색색의 장미 7,080주가 식재돼 있다.

또, 가족 단위 관람객들을 위해 장미터널, 어린이 놀이터, 창포연못 등 다양한 볼거리가 조성돼 있다.

군 관계자는 "나비대축제 폐막 후에도 2주간 3만여 명의 관람객이 엑스포공원을 다녀갔다"며 "올 가을 열리는 대한민국 국향대전에서 더욱 다채로운 볼거리로 관광객 여러분을 다시 뵙겠다"고 말했다.

김영진/기자



군산콘텐츠팩토리, 오는 27일 창업멘토링 특강 개최

군산시의 콘텐츠 창작·창업 지원기관인 군산콘텐츠팩토리가 오는 27일 창업멘토링 특강을 개최한다.

이번 특강은 콘텐츠팩토리에서 운영 중인 '디지털콘텐츠 취·창업 멘토링학교' 프로그램 중 하나로 27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총 3시간에 걸쳐 진행된다.

군산시 청년·창업센터 센터장을 역임했던 KAIST 창업원 안태욱 교수를 비롯해 전북캠캠퍼스기술원 미래전략기획본부 최훈 팀장, 다림협동조합 김준학 대표가 멘토로 특강을 진행한다.

3명의 멘토들은 '한국 창업생태계와 기업가 정신', '디지털콘텐츠창업 경험담과 사업기획 방법', '지속가능을 위한 네트워크의 필요성' 등에 대한 강의를 통해 콘텐츠 취·창업 준비생들과 소통할 계획이다.

콘텐츠팩토리에서 운영 중인 '디지털콘텐츠 취·창업 멘토링학교'는 지역 내 콘텐츠분야 취업 준비생 및 창업자를 대상으로 실무 교육부터 취·창업 멘토링, 콘텐츠기업과의 네트워킹 등을 지원하여 콘텐츠 제작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마련된 무료 프로그램이다.

이번 특강은 군산시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 가능하며, 군산콘텐츠팩토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박홍순 문화예술과장은 "콘텐츠 창업인큐베이팅 시설인 콘텐츠팩토리를 통해 콘텐츠 분야의 취·창업 준비생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지역콘텐츠가 만들어져 지역을 알리고 새로운 일자리와 소득창출로 연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현태/기자

완도군, 12개 읍면 찾아가는 '주민 참여 예산학교' 운영

완도군은 주민 참여 예산제에 대한 주민 이해도 및 참여도를 높여 주민 참여 예산제를 활성화하고자 12개 읍면을 찾아가는 '주민 참여 예산학교'를 운영 중이다.

그동안 '주민 참여 예산학교'는 군민들이 특정 장소를 방문해 교육을 들었으나 주민 참여 예산제에 대한 군민들의 참여를 뒷받침하고자 군은 올해 처음으로 찾아가는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교육은 지난 4월 26일 보길면을 시작으로 5월에는 금일읍, 약산면, 완도읍, 노화읍, 군외면의 주민자치

회, 이장단, 사회·단체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이와 읍면은 6월에 순회할 예정이다.

군은 향후 청소년, 청년, 여성, 다문화, 장애인 등 대상별로도 교육을 진행하여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은 ▲주민 참여 예산제 이해 ▲주민 참여 예산 현황 ▲주민 참여 예산 우수 사례 ▲사업 발굴 및 제안서 작성 방법 등으로 주민 참여 예산제가 원활하게 운영되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양영율/기자

"장흥 편백숲 우드랜드에서 '숲속힐링음악회' 즐겨요"

장흥 편백숲 우드랜드 대표 행사 중 하나인 숲속힐링음악회가 오는 28일부터 10월 말까지 총 10회에 걸쳐 우드랜드 내 야외공연장에서 열린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숲속힐링음악회는 하모니 퓨전예술단이 주관하여 하모니예술단의 전문 음악인과 지역 내 연주자들이 무대를 장식한다.

이번 공연은 국악가요를 비롯해 하모니가 연주, 해금 합주, 클래식, 이색악기 연주까지 다양한 장르를 준비해 기대를 모으고 있다.

5월 행사의 테마는 숲과 어울림이다.

박재원/기자

▲분노의 질주(라이드 오버 다이) ▲드림 ▲인어공주 ▲슈퍼마리오 브라더스 ▲범피도시(3월 31일) ▲포켓몬스터(6월 1일) 등으로 아이부터 어른까지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영화들이 상영을 준비하고 있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진도아리랑 시네마는 군민들의 문화복지를 위해 조성된 공간이다"며 "군민들을 위해 더 많은 감동과 추억을 선물하고 휴식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일반 성인은 1천원 할인된 6천원으로 영화관람이 가능하다.

구례군 가정의 달·마음근육 & 힘 되는 말! 부모와 자녀 간 소통·강좌 열려

전남 구례군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지난 23일 섬진아트홀에서 마음근육 & 힘 되는 말! 부모와 자녀 간 소통"이라는 주제로 열린 강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강좌는 한국인재경영교육원 강은미 대표를 초청하여 진행했다. 강은미 대표는 조선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고 글로벌 부모교육센터에서 아동심리교육 등의 다수의 강의를 하는 우리나라 대표 부모

멘토로 알려져 있다. 현대사회에는 부모와 자녀 간에도 대화를 위한 시간과 여유가 부족한 실정이다. 부모와 자녀 관계는 기본적인 친밀한 관계인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의사소통은 매우 중요하다. 가정 내에서 의사소통은 자녀의 인격 형성이나 정서적 안정, 인지 조절 능력 등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김순호 군수는 "이번 강연은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많고 호응이 높았다"며, "이는 군민의 욕구를 잘 반영한 결과로 앞으로도 부모와 자녀가 함께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특화 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현/기자

김성현/기자

영광군, 2023년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선정

영광군은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도 재난관리평가에서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정부포상과 함께 포상금 등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재난관리평가는 행정안전부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관리 단계별(예방·대비·대응·복구) 주요 역량을 진단하는 종합평가로서 국가 차원의 재난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2005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총 338개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대상으로 재난안전관리 6개 분야 45개 지표에 대해 평가했다.

영광군은 이번 평가에서 재난관리 기금 관리, 재난관리자원의 비축·관리, 예·경보시설 관리 실태 및 신규·보강 실적, 재난발생시 신속한 초동조치 역량, 재해구호 인프라 확보 및 관리실적, 복구사업 관리 역량 등 다양한 지표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이번 평가 결과는 안전한 영광을 만들기 위해 군민 모두가 노력한 결실이다"면서도, "앞으로도 재난관리 역량을 더욱 강화하여 군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동순/기자



디지털 콘텐츠 취·창업 멘토링 특강

5.27 (목)
PM 1:00 - 5:30
군산콘텐츠팩토리 3F
(군산시 행정로 146-54)

군산 지역의 콘텐츠 취·창업, 창업에 꿈꾸는 여러분!
전문 멘토와 함께 창업에 필요한 지식과 실무 노하우를 배우보세요!

KAIST 창업원 교수 연태욱 (PM 1:00 - 1:50)	영광군청 기획팀장 최준 (PM 2:00 - 2:50)	다림협동조합 대표 김준학 (PM 4:00 - 5:30)
한국어 창업 생태계에서 기업이 된다 : 학생들의 미래를 위한 비전	디지털 콘텐츠 회사 창업 경험담과 사업 계획 방법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방법 : 네트워크, 자금, 홍보까지 자신을 이해하기

www.kca.or.kr

전남도, '전 국민 화합·감동 체전' 담금질



개·폐회식 용역 착수보고...연출·프로그램 운영계획 등 논의

전라남도는 23일 도청 정약용실에서 '제104회 전국체전·제43회 전국장애인체전 개·폐회식 연출 대행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어 전 국민이 화합하고 감동하는 특별무대 준비에 본격 뛰어 들었다.

이날 보고회에는 박명성 개·폐회식 총감독, 양 체전 주 개최지인 목포시, 전남도체육회, 전남도장애인체육회 등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전남도는 이번 개·폐회식을 '생명의 울림 속으로'라는 주제로 미디어와 접목한 첨단 무대 체계(메카니즘)를 활용해 최고의 전야에서 미래산업의 중심이 되는 전남의 모습을 선수단 입장, 성화 점화, 주제 공연 등과 연계한 뮤지컬 형식으로 표현할 계획이다.

착수보고회에선 대행용역사(씨포

스트 컨소시엄)로부터 세부 연출 구성, 주요 프로그램별 구체적 운영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한 다양한 의견 수렴과 논의가 진행됐다.

전남도는 착수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고, 개·폐회식 연출자 문위위원회와 연출계획 보고회 내용을 구체화해 올림픽에 버금가는 국민 감동 무대로 만들 방침이다.

김기홍 전남도 관광문화체육국장은 "전국체전·장애인체전 개·폐회식을 전남의 무궁한 잠재력과 미래비전을 담은 세계적 무대로 만들겠다"며 "세계 일류와 경쟁하는 생명의 땅 으뜸 전남의 저력과 위상을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제104회 전국체전 개회식은 오는 10월 13일 목포종합경기장에서, 폐회식은 10월 19일 열린다. 제43회



전국장애인체전 개회식은 11월 3일 목포종합경기장에서, 폐회식은 11월 8일 목포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다. 박중배/기자

신안군, 인구소멸시대 기초자치단체의 도전과 비전 혁신 세미나 개최

신안군은 지난 23일 신안군청 공영장에서 지방자치연구소(이영애 대표)가 주관하는 '인구소멸시대 기초자치단체의 도전과 비전 혁신'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신안군의회 의장 및 의원, 사회단체장, 공무원과 군민 등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구소멸의 위기 속에 기초자치단체의 역할과 전망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본 세미나는 신안군의 혁신사를 공유하는 한편, 인구소멸 시대를 대비해 신안군의 정책환경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전략적인 정책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개최했다.

첫 번째 세션은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의 기조연설(주제: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그 비전과 전략)로 시작하여 ▲인구소멸시대 신안군의 도전과 비전 ▲작은 섬 개발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계획 ▲지방소멸대응기금 1년과 향후

과제, 3개의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인구소멸, 정부 및 신안군 비전'을 주제로 지방자치연구소 이영애 대표를 비롯한 4명의 패널과 공무원, 주민이 참여하는 토론을 진행했으며, 다양한 제언을 통해 신안군 군정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의 장을 마련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지방소멸의 위기를 직면하고 있는 지방정부들이 제각기 창의와 혁신을 통해 시대적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기를 바라며, 신안군의 사례가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소회를 전했다.

한편, 신안군에서는 4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신안군, 문화예술행정을 통한 인구소멸 대응전략' 세미나를 개최하여 신안군의 색채(컬러) 마케팅, 문화예술(아트) 마케팅을 통한 행정혁신을 공유하는 장을 마련한 바 있다.

김영안/기자

'버스 타고 나주 한바퀴', 나주시 시티투어 4년 만에 재개 ... 3개 코스 구성

매주 주말 버스 타고 나주시 대표 관광 명소를 둘러볼 수 있는 나주시 시티투어가 4년 만에 재개되면서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전라남도 나주시는 지난 4월부터 시작된 나주시 시티투어를 오는 11월 12일까지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나주시티투어는 문화해설사와 함께 버스를 타고 나주의 주요 역사문화, 생태관광 명소를 하루 동안 여행할 수 있는 관광상품이다.

매주 토요일 역사문화체험 중심의 정기코스와 둘째 주 일요일 '힐링코스', 넷째 주 일요일 '포토스팟 코스'로 테마별 여행 노선을 다채롭게 구성했다.

운행 시간은 오전 10시 10분부터 오후 5시 5분까지로 모든 코스가 동

일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수도권 관광객 유치와 이용 편의를 위해 전체 코스 출발점을 기존 유스퀘어(광주버스터미널)에서 KTX나주역으로 변경했다.

매주 토요일 정기코스는 KTX나주역에서 출발해 '국립나주박물관-나주읍성-황포돛배-천연염색박물관-북암리고분전시관-KTX나주역' 순으로 운행한다.

생태 관광과 치유 프로그램에 포커스를 맞춘 힐링코스는 '영산포철도공원-황포돛배-중식-산림자연연구소-도래한옥마을-불화사'를 경유한다.

포토스팟 코스는 '빛가람전망대-산림자연연구소-중식-나주읍성-영산포철도공원-우습제-느리저전망대' 순으로 사진 찍기 좋은 관광 명

소를 둘러볼 수 있다.

버스 탑승료는 성인기준 4000원이며 경로·아동·국가유공자 등은 50% 할인(2000원)된다.

사전 5명 이상 예약 시 운행하며 사전 예약이 원칙이지만 잔여 좌석이 있으면 현장에서 현금결제라도 탑승할 수 있다.

운행태 나주시장은 "올해부터 KTX 연계를 통해 나주를 찾는 관광객에게 나주의 유구한 역사 문화, 천혜 생태 관광자원을 실속 있고 효율적으로 보고 즐길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여행 코스를 편성했다"며 "코로나19 일상 회복과 여행하기 좋은 계절을 맞아 시티투어를 통해 전통과 미래가 공존하는 나주의 매력을 느껴보길 바란다"고 밝혔다.



나주시티투어 사전 예약은 '나라고속관광'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여행 노선 등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 문화관광 누리집 '시티투어'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안/기자

목포시, 시민감사관 간담회 열려...청렴 문화 활성화 기여

분야별 전문가 20명으로 구성, 시민 소통의 선도적 역할 기대

목포시가 시민감사관 간담회를 지난 23일 개최했다.

박홍률 목포시장과 총 20명의 시민감사관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는 시정 주요 사항에 대한 의견 개진과 부정부패 사전 차단을 위한 위법·부당한 제도 및 관행 등에 대한 시정 건의의 시간으로 꾸러졌다.

특히, 시민감사관들은 청렴 행정을 위한 법령의 준수, 적극적이고 친절한 민원 응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시의 노력을 당부했다.

올해 시민감사관들은 시민 불편 사항 및 불합리한 제도 개선 제안,

공직자 부조리와 비위, 불친절 행위 신고, 건축·토목 등 전문분야 기동감찰 현장 점검 참여 등 시정 발전과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주축 역할을 할 예정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시민감사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투명·공정한 업무 처리를 위해 힘쓸 예정이다. 소통과 공감의 행정으로 시민이 행복한 청렴 목포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시는 지난해 8월 공개모집을 통해 9개 분야 전문가 11명, 일반분야 9명 총 20명의 시민감사관을 위촉·운영하고 있다.

박중배/기자

화순어울림봉사회, 드림스타트 대상아동 가정에 후원물품 전달

화순군은 지난 18일 어울림봉사회에서 지정기탁 받은 후원물품(백미 20포, 달걀 20판, 화장지 20개)을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대상 아동 20가구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어울림봉사회는 2014년부터 매년 2회씩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사례관리사와 함께 후원물품을 사례관리 대상 아동 가정에 전달하는 등 따뜻한 나눔을 꾸준히 실천해오고 있다.

후원물품을 전달받은 한 가정에서는 "어즘 같은 시대에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살피고 도움을 주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고마움을 전했다. 어울림봉사회 회장은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라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쌀을 후원하게 됐다"라며 "앞

으로도 주위에 있는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적극 동참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화순군 관계자는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관내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후원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신체적·정서적·사회적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화순군드림스타트는 아동의 공평한 양육 여건과 출발의 기회 보장, 문제의 조기 진단과 개입을 위해 저소득층 가정의 0 ~ 만 12세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건강, 복지, 교육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복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윤경호/기자



화순군드림스타트 대상아동 가정에 후원물품 전달하는 모습. 윤경호/기자

장흥군, '청렴한 조직문화 만들기' 전직원 교육

장흥군은 22일 장흥통합의학컨설팅센터 대회의실에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청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공정한 직무수행과 국민 신뢰 확보를 위한 청렴관련 규정의 이해'란 주제로 진행됐다.

청렴강사로 나선 김세국 감사관은 청탁금지법,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포함한 공무원 행동강령 중심의 교육을 진행했다. 김 감사관은 제46회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하고, 감사원 요직을 거쳐 2021년 전라남도 개방형 감사관으로 임명됐다.

감사원에서 다년간 축적한 감사활동 전략과 기법을 보유한 전문가로서의 자질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도정 목표에 대한 탁월한 이해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높게 평가 받고 있다.

강의는 법령에 관한 상세한 설명뿐

만 아니라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뒀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됐고, 공금했던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어져 직원들의 공감과 호응을 얻었다.

장흥군은 종합청렴도 상위권 도약을 위해 '반부패·청렴 추진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인 전략으로 1부서 1반부패 청렴시책, 전공직자 청렴서약서 작성 및 실천, 청렴컨설팅 참여, 갑질행위 근절대책 등의 다양한 시책을 실천하고 있다. 김성 장흥군수는 "반부패·청렴문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뢰와 화합, 배려와 희생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며, "올해를 '청렴도 상위권 도약을 위한 원년'으로 삼아 군정의 전환점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재원/기자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사람과 반려동물이 어울려 사는 광주"

광주시가 사람과 동물이 어울려 사는 반려동물 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22일 오후 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28번째 월요대화'에서 동물보호활동가, 기관 관계자 등 동물복지 전문가들과 함께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 방안을 논의했다.

조운주 VIP동물의료센터 부설연구소장은 ▲국내외 복지시설 운영 사례 ▲길고양이 등 구조·보호동물 관리방안 ▲입양문화 정착 방안 등을 소개하고 "구조·보호동물 관리방식의 선진화를 통해 반려동물 복지도와 입양문화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혐오시설 논란이 있는 동물복지센터(보호센터)가 동물을 키우지 않는 시민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고 주요 밀원 대상인 소음·냄새를 차단할 수

있는 설계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시 동물보호센터를 위탁운영 중인 임용관 (사)광주동물보호협회 위드 대표는 "앞으로 동물보호시설의 시 직영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와 청소년 등 지역주민을 위한 복합문화 시설로 운영하면 혐오시설이 아닌 긍정적인 이미지로 지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세봉 광주여자대학교 교수(반려동물보건학)는 "동물보호소에 미용 등 전문인력을 좀 더 배치해서 행동 교정과 미용에 신경을 쓴다면 반려동물 관련 산업 일자리 창출과 함께 유기동물이 입양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더욱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려동물 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도 쏟아졌다.

김일중 한국관광공사 레저관광팀 차장은 "반려동물 관광산업이 급성장하고 있고, 일반여행에 비해 소비

도 2~3배 높지만 반려인이 반려동물과 갈 수 있는 관광지·음식점·숙박업소는 턱없이 부족하고 규제에 막혀있다"며 "반려동물과 함께할 수 있는 광주비엔날레와 같은 행사를 기획하거나 반려동물 식당출입을 위한 규제유예제도(샌드박스)를 지자체에서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학대 예방 및 길고양이에 대한 시민 인식전환과 행정의 전담인력 강화 등의 의견도 나왔다.

최정순 광주시킷맘협의회장은 "길고양이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전환이 절실하다"며 "중성화 사업(TNR) 성공을 위해 전담인력 확보 및 시·구 일원화 시스템 구축, 유기·유실동물 구조창구 일원화, 공원 내 급식소 설치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병렬 한국동물병원협회장은 "오랜기간 반려동물 정책을 논의했지만 전담인력이 부족해 정책실행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실효성 있는 반려

동물 정책을 위해 전담부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광남 (사)광주광역시수의사회장은 "광주는 야간에 유기동물이 다치거나 아팠을 때 갈 곳이 없다. 현재 가족감염병 관리를 위한 공수의 운영을 해야한다"며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통한 동물학대 예방, 무등록 입소 단속 등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가족의 범위를 같이 사는 '사람'에 둘 것인가, 같이 사는 반려동물까지 볼 것인가를 고민한 결과, 이제 가족의 범위는 반려동물까지 확대해야 할 것 같다"며 "사람과 동물이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도록 월요대화에서 들은 다양한 의견을 꼼꼼히 검토해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대화에는 강 시장을 비롯해 조운주 VIP동물의료센터 부설연구소장, 최정순 광주광역시 킷맘협의회장, 임용관 (사)광주동물보호협회 위



광주시장 강기정 (가운데)은 이날 월요대화에서 동물복지센터(보호센터)가 동물을 키우지 않는 시민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고 주요 밀원 대상인 소음·냄새를 차단할 수 있는 설계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수/기자

양평군, 봄철 산란기 불법 어업 합동단속 추진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불법 어업 행위 근절

양평군은 지난 5월 4일부터 6월 3일까지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봄철 산란기 불법어업 합동단속 기간 운영에 맞춰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불법어업 단속은 봄철 산란기를 맞아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해 추진됐다. 군은 자체계획을 수립해 합동단속 추진 및 연중 수시 지도·단속을 시행할 예정으로, 고질적인 불법어업 근절을 통해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 질서를 확립하고자 한다.

특히, 양평군은 불법 어구의 적재·사용·유통과 직판장 등 판매현장을 집중 단속 추진할 예정이며, 위법행위 적발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고발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역의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불법 어업 지도 및 단속으로 어업 질서의 확립을 도모하고자 한다”며, “어업인과 주민들은 관련 법령을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성윤/기자



“지정수량 30배 초과 위험물 불법 저장”... 경기도 민생특사경, 무허가 위험물 저장 등 제약회사 불법행위 13건 적발

도 특사경, 제약회사 사업장 내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행위 등 13건 적발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제약회사 유형별 불법행위 주요사례 1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보관 (옥외창고)

화성시 A 제약업체
지정수량 30배 이상의 위험물을 허가받지 않은 폐기물 보관소에 불법 저장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시클로헥산 3,800리터
초산에틸 2,200리터

불법행위 제보 경기도 콜센터 ☎(031)120 경기도 특사경 누리집 www.gg.go.kr/gg_special_cop

지정수량의 30배를 초과하는 위험물을 불법 저장하거나 동일한 장소에 저장할 수 없는 위험물을 함께 저장하는 등 제약회사 내 불법행위가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월 6일부터 4월 14일까지 도내 제약회사 사업장 6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 위험물 저장행위 등을 수사한 결과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위반한 13건을 형사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 저장소 또는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한 행위 12건 ▲ 동일한 저장소에 저장할 수 없는 위험물을 함께 저장한 행

위 1건 등 총 13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화성시에 위치한 A 제약업체는 지정수량 30배가 넘는 시클로헥산 등 제 4류 위험물을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저장하다가, 화성시의 다른 B 제약업체는 실험실 내 시약 보관실에 메탄올 등 제 4류 위험물을 지정수량 1.72배 저장하다 적발됐다.

안산시에 위치한 C 제약업체는 허가받지 않은 폐기물 보관장소에 노말헥탄 등 지정수량 10.5배에 해당하는 제 4류 위험물을 저장하다, 안산시에 위치한 다른 D 제약업체는 폭발성 등 위험성이 높아 함께 저장해서는 안 되는 에탄올(제4류 위험물)과 유황, 철분(제2류 위험물)을 함께 저장하다 적발됐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저장소 또는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한 업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위험물을 혼재 저장한 업체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제약회사 특성상 위험물의 종류와 수량에 대한 사전정보 파악이 어려워 화재 발생 시에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지난해 화성에서 발생한 제약회사 폭발 사고와 같은 안타까운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체 수사를 지속하겠다”라고 말했다.

조혜영/기자

천안동남署, 스쿨존 법규위반 특별단속

어린이 교통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경찰활동 전개

천안동남경찰서에서는 최근 스쿨존 교통사고가 계속되고 있어 지난 4월 20일부터 어린이 교통안전환경 조성을 위해 스쿨존 법규위반을 특별 단속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특별단속기간 중 ▲ 등·하교 시간대 학교 주변 사고 위험이 높은 곳 중심 교통위반 집중단속 ▲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 106개소 시설물 일제 전수점검 ▲ 초등학교 숲 개소(40개소) 내 어린이 보호구역 법규준수 홍보 현수막 게시 등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경찰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5월 23일 천안시 동남구청에서 개최된 23년 제2차 교통안전정책간담회에 참석,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를 주제로 천안시청, 천안교육지원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교통관계기관 간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의제 토의와 의견 교환을 실시했다.



이보호/기자

천안동남경찰서 관계자는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부상사고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보호구역 운행 시 모든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의무를 당부하며, 어린

이 보호구역 내 단속을 강력하게 추진함과 동시에 교통안전시설물 보강을 통하여 어린이가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사고를 예방하도록 안전을 기하겠다.” 고 밝혔다.

김원호/기자

경산시,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야간합동단속' 실시

올바른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방법 등 홍보활동

경산시는 22일부터 6월 19일까지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야간합동단속 및 올바른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방법 등 홍보활동에 나선다.

특히 대학가, 원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무분별한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로 인해 도시미관 저해, 생활 불편 민원이 지속해서 발생하는 무단투기 상습지역을 대상으로 자원순환과 직원과 불법투기 단속 감시원으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야간단속을 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종량제 봉투 미사용, 대형폐기물 스티커 미부착, 종량제 봉투 내 음식물 쓰레기 및 재활용품 혼합배출 행위 등으로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적법 조치하고, 또한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 등도 함께 홍보활동을 펼친다.

이번 야간합동단속은 쓰레기 불



법투기 행위를 단순히 계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불법투기 자체가 근본적으로 근절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등 홍보를 통해 환경에 대한 시민의식을 개선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최순환 자원순환과장은 “앞으로

도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통해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근절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면서 아울러 시민들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동현/기자

의성교육지원청, 학교 주변 유해환경 분야 합동 단속 실시

경상북도의성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는 이달 22일 학교 주변 유해환경을 점검하고 업소 관계자 인식 제고 등을 위해 의성군청과 함께 직접 현장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단속은 학교 주변 유해업소 정보를 공유하고 관계기관 간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해 직접 현장 단속을 실시했으며,

점검 결과 위반 여부가 확인된 불법업소에 대해서는 후속조치를 이행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합동단속 내용으로는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설치금지 행위 및 시설 위반 단속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의무 위반 집중단속 △불건전광고 및 청소년 대상 불법 판매 행위

단속 등으로 학교 주변 업소 대상으로 불법 영업 행위를 집중 단속했다.

의성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김성중 과장은 “교육환경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학교주변 유해환경 단속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함께해요 행복출산,
같이해요 든든육아**”

우리를 위한 선택! 선택을 돕는 지원! 경상북도가 행복을 키워줍니다

<p>결혼·청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1인 1,060만원) · 신혼부부 전월세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 청춘남녀 만남지원 · 청년시범마을 일자리사업 	<p>임신·출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소득 불문) ·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 공공산후조리원 확대 · 다자녀가구 최초 주택 취득세 면제 	<p>돌봄·교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 전 계층(0~5세) 무상보육 · 국공립 /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 · 초등학교 마을돌봄터 운영 · 아이돌봄 서비스 부모부담 경감(90~100%)
--	---	---



충남도, 글로벌 인재양성으로 지역대학 위기 극복

교육, 농·어업 및 제조업 등 충남 주력 산업 분야 협력 모델 구축

충남도와 지역대학, 중앙아시아 5개국이 학령인구 감소 및 주력 산업 분야 인력난 극복을 위해 힘을 합친다.

이들 기관은 유학생 유치에 넘어 주력 산업을 책임질 글로벌 인재를 양성할 계획으로, 지역대학은 물론 인력난을 겪고 있는 지역 산업계에도 승승이 될 전망이다.

도는 23일 선문대 국제회의실에서 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타지키스탄·키르기스스탄·투르크메니스탄 중앙아시아 5개국과 선문대·연암대·도립대, 경제기관·기업 10곳과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기영 도 행정부지사과 디나라 케멜로바(Dinara Kemelova) 키르기스스탄 대사를 비롯해 각 국 대사관 관계자, 황선조 선문대 총장 등이 참석해 지속 협력

할 것을 다짐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유학생 교육·취업·정주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함으로써 유학생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산업체 취업과 연계해 지역의 인력난 해소에 나선다.

도는 지역경제 및 산업별 인력수급 현황 정보공유, 지역인재 양성에 필요한 규제 개혁을 지원하며, 중앙아시아 5개국은 협약 체결 대학에서 유학생 학생의 선발·과정을 담당한다.

대학은 중앙아시아 국가의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과정을 제공·관리하고, 산업체는 육성인재의 현장실습 기회제공 및 채용, 산업 수요 등 정보 교류에 협력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중앙아시아 5개국과의 교류가 전방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김태환 지사는 지난 3월 우즈베키스탄 페르가나주와 우호교류



협력을 체결하고, 도내 중·소기업 및 농·어촌 일손부족 문제와 관련된 새로운 협력 모델을 구축한 바 있다.

김기영 행정부지사는 "이번 업무협약이 모두가 원하는 윈윈하는 모델이 되어 충남 뿐 아니라 대한민국

과 중앙 아시아의 협력이 강화되기를 희망한다"며, "중앙아시아 5개국 학생들이 열정적으로 공부하고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최정근기자

박노학 음성 부군수, 현안사업 국비 지원 건의

음성군은 2024년도 정부예산안에 군의 주요 사업이 반영되도록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25일 24일 밝혔다.

박노학 음성 부군수는 현안 사업 건의를 위해 23일 환경부를 방문해 산업단지 노후 오폐수관로 개선사업과 용계저수지 상류 비점오염저감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정부예산에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음성군 대소, 대풍, 금양산업단지는 20년 이상 경과한 산업단지 노후 오폐수관로의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으며 2021년도에는 금양산업단지 내 오폐수관로가 부식성 가스로 인한 파손으로 싱크홀 사고가 발생하는 등 군에서 국비 5억6천만원을 들여 긴급 보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군은 위 3개 산업단지의 오폐수관로에 대한 정밀 진단 용역을 실시했으며 결과는 이음부 이탈, 배수 불량, 뿌리 침입 등 오폐수관로 개선이 시급함을 확인했

다. 군은 대형사고 및 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2024년 산업단지 오폐수관로 개선사업'(총사업비 33억원)의 정부예산 반영을 적극 건의했다.

또한, 군은 한남금북정맥 출구의 한강수계 응천 최상류에 위치한 용계저수지에 유입되는 비점오염물질 저감을 통해 응천 수질을 개선하고자 비점오염저감사업 추진을 위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 중에 있다.

박 부군수는 수질개선이 시급한 응천의 최상류에 위치한 용계저수지의 비점오염저감사업의 추진을 위해 조속히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임을 설명하고, 본 사업에 대하여도 환경부에 국비 지원을 적극 건의했다.

박노학 부군수는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음성군에 꼭 필요한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철원을 바꿀 군민의 제안." 2023년도 '군민 삶의 질 향상'군민 제안 공모 접수

강원 철원군은 6월30일까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모든 군민 및 관내 주둔 군장병들을 대상으로, 시책을 '직접 발굴'하여 제안하는 '군민 삶의 질 향상' 군민제안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안 공모에 의하면 '철원군 철원문제 해결 및 지방소멸 극복'을 위하여 군민 및 군장병이 직접 시책을 발굴·제안함으로써 '군민의 군정참여 활성화'와 함께 '군민이 체감하는 현장밀착형 시책발굴'을 목적으로 한다.

제안대상으로는 ▲인구 분야 ▲경제 분야 ▲관광 분야 ▲복지 분야 ▲국방 분야 ▲기타분야 등 총6개 분

야이며, 채택된 제안은 군수표창과 함께 최대 200만원의 부상금을 수여한다.

권용길 기획감사실장은 "더욱고 더행복한 희망철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철원군민의 창의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가 필요하며 철원군민의 제안을 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살기 좋은 철원을 만들겠다"라며 군민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참여방법은 철원군청 홈페이지(참여마당-공모전) 또는 방문·우편접수를 이용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철원군청 기획감사실 기획정책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이세나기자

동해시, 전남권역에 동해시 대표관광지 알린다

전남지역 여행사 초청 홍보 여행 실시

동해문화관광재단은 최근 전남지역 여행관계자를 초청하여 체험 및 체류형 동해시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초청 홍보 여행을 진행하는 등 본격적인 피서철에 앞서 동해시 대표 관광지 알리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2박 3일간 전남지역 여행사 대표 17명을 초청하여 천곡함박쥐동굴, 한섬감성바닷길, 무릉계곡, 무릉별야원, 천암관광지, 도깨비굴 스카이벨리 등 동해시 대표 관광지를 방문하고 체험하는 시간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자이언트 슬라이드, 오프로드 루지, 스카이글라이더 등 동해시의 다양한 액티비티 시설을 직접 체험

해 보고, 무릉건강숲과 보양온천컨벤션호텔의 숙박시설 등을 안내받으며 관람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시는 전남지역의 여행관계자를 대상으로 동해시의 관광 매력을 적극 알리고, 지역 여행업체와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는 한편, 이번 여행사 초청 홍보 여행이 체험형,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판매와 연계하여 향후 동해시 관광객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유식 팀장은 "올해 피서철 전국의 많은 지역에서 관광객이 동해시에 머무르면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여행상품 개발과 콘텐츠를 만드는 데 주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등원기자

아산시, 전국 지자체 최초 '온천수 품질관리' 사업 시행

23일부터 희망 온천장부터 우선실시 후 점진적 확대

아산시 및 아산시 산하 (재)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은 관내 온천장에 공급하는 온천수를 적정 관리하여 관광객이 안심하고 온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아산시는 조선시대 왕실 온천으로 유명한 온양온천을 비롯해 도곡온천과 아산온천이 있는 명실상부한 온천의 고장으로써 2021년에 온천전문기관인 진흥원을 설립하여 지역의 온천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시도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월 1회 원수(原水) 및 용수(溶水) 수질검사 △분기별 1회 성분 검사 △온천수 품질유지 개선에 관한 컨설팅 제공 등을 주요 골자로 하며, 5개월 이상 적정기준을 꾸준히 유지하는 우수 업체를 선정하여 '안심 온천'이라는

현판을 제공할 예정이다. 진흥원은 품질관리 사업을 희망하는 업체를 시작으로 오는 23일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하며 관내 사업장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진흥원 김창용 원장은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온천수의 수질과 성분 분석을 주기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코로나 팬데믹으로 더욱 높아진 국민의 보건위생 눈높이를 맞추는 한편 고품질의 온천수 보증을 제공함으로써 아산시가 또 한 번 온천명품 도시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참고로 온천수 품질관리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아산시 관내 온천업체는 진흥원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김원호기자

천안시, 관외 의료급여 입원환자 방문 '지역사회 복귀 지원'

타지역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치료 중인 입원환자들 직접 현장상담

천안시는 이달부터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천안시에 주소를 두었으나 서울, 경기, 충북, 대전 등 타지역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치료 중인 입원환자들을 직접 방문·상담하며 사례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장기입원자 사례관리는 입원자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제도 안내와 상담을 통해 적정 의료이용을 유도한다.

치료목적이 아닌 입원자를 대상으로 외래진료 전환 안내 및 재가 서비

스, 시설 입소 등을 연계해 지역사회로의 복귀를 돕는 것이 목적이다.

시는 퇴원 후 돌아갈 거주지가 없거나 돌봐줄 가족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입원을 선택한 대상자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접해 현장을 방문했다.

대상자들에게 2019년부터 천안시가 시행하고 있는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을 알리며, 자연연계를 통한 지역사회로의 복귀에 적극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설명했다.

김원호기자

태백시-모두의 예체능, 태백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공동 업무 협약식 체결

태백시와 모두의 예체능은 지난 23일 태백시청 시장실에서 태백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공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이상호 태백시장, 안경현 모두의 예체능 대표이사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양 기관은 전국단위 생활체육대회 개최를 위해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태백시 생활체육 활성화와 저변확대에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태백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각 종목별 레전드 코치의 강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등 태백시 생활체육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호 태백시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실력향상과 태백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태백시는 원활한 대회 유치 및 개최를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과 함께 '고원관광 휴양 레저스포츠 도시 태백'이라는 명칭에 걸맞은 지속적

인 관리와 정비를 통해 전국 규모의 생활체육대회를 지속 유치해나갈 예정이다.

유상근기자

옥천군, 금강휴게소와 함께 옥천 관광지 널리 알려!

충북 옥천군은 경부고속도로 최고의 쉼터인 금강휴게소를 방문하는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옥천의 관광지를 비롯해 축제, 특산물 등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충청도 지역을 관통하는 금강변에 위치한 금강휴게소는 상행선과 하행선이 한 곳에 있는 양방향 휴게소인 데다가 금강유원지에 인접해 있어 한적한 강변을 거닐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이용객들이 많다.

군은 옥천9경 홍보판과 홍보용 조명간판을 금강휴게소 내에 설치해 방문객을 대상으로 옥천의 관광지와 주요 축제를 홍보하고 있다.

금강휴게소를 방문한 한 이용객은 "무심코 올려다본 곳에 옥천 관광 홍보판이 있어 보게 됐다. 사진을 보고 설명을 읽어 보니 궁금증이 생겨

다음에 꼭 옥천 관광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뿐만 아니라, 금강휴게소 내 옥천군 종합홍보관 외벽에 있던 홍보판도 새로 단장해 이용객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이 홍보판은 금강유원지의 전경을 바라볼 수 있는 전망대 벽면에 설치되었으며 오고 가는 사람들 눈에 잘 띄는 곳에 있어 옥천군 관광 홍보 효과를 톡톡히 내고 있다.

정지승 문화관광과장은 "저마다의 목적지에 가기 위해 금강휴게소에 들른 이용객들이 옥천의 아름다운 관광지에 대한 홍보판을 보고 옥천을 목적으로 하는 여행을 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옥천군과 금강휴게소는 2021년 유관기관 협력형 종합 플랫폼인

종합홍보관을 개관하는 등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지역방문객 유치를 위해 함께 힘쓰고 있다.

고정화기자



철원군, '뗏다방 등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마세요!!'

철원군보건소는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한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 판매 행위(속칭 '뗏다방')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단속을 강화한다.

합동단속반은 보건소 위생팀 및 시니어 감시원(어르신들이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지도·계몽하는 활동)과 함께 '뗏다방' 정보수집 및 단속)으로 구성하여, 오는 6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해제 등 방역조치 완화에 따라 다수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경품 제공 및 무료 공연 등을 하면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의심 사례가 있어 고령자들의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백승민 보건정책과장은 '제품의 허가 여부 및 표시사항 등을 확인, 식품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하는 행위에 속지 말고, 미끼상품 및 무료공연 등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경로당 및 영업장에서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목격할 경우 즉시 국번없이 1399나 보건소 위생팀으로 신고하여 주시면 신속히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세나기자

뗏다방(홍보판)의 허위·과대광고에 속지 마세요!

이유없는 공짜는 없다! 처음부터 상품판매가 목적!

뗏다방 신고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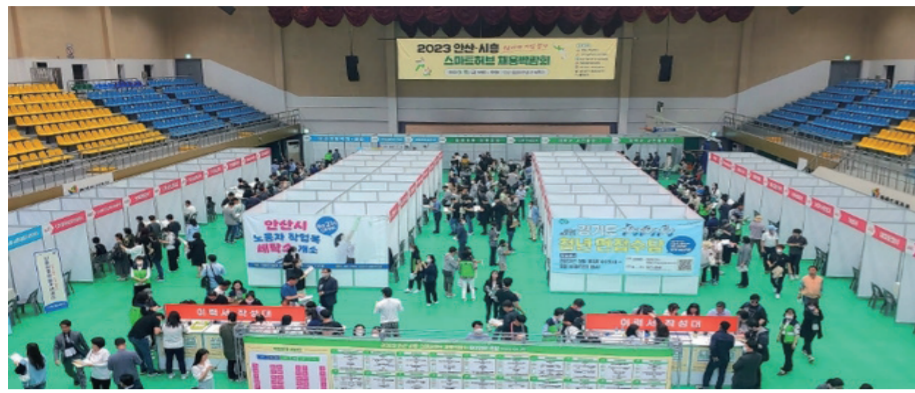
전화: 국번없이 1399

인터넷: 식품안전나라 www.foodsafetykorea.go.kr

가까운 대한노인회 또는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식품의약품안전처

안산·시흥 스마트허브 채용박람회 성황리 마무리...현장에서 364명 채용 성과



안산시는 구직자와 구인업체의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를 위해 개최한 '안산·시흥 스마트허브 채용박람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19일 안산올림픽기념관 체육관에서 개최된 이번 박람회는 안산시와 시흥시, 안산·시흥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 안산상공회의소 등 일자리 유관기관이 협업체로 진행됐으며, 51개 우수 기업체가 참여해 총 800여명의 구직자 면접이 진행됐다. 특히 기업의 정보를 현장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위치기반

플랫폼을 도입해 구직자들의 편의를 높였다는 평이다. 아울러 고용지원사업 설명회 및 상담, 취업 컨설팅, 무료사진 촬영, 취업 관련 진단검사, 학생들의 취업 지원을 위한 '특성화고 기업 체험부스' 등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총 364명이 현장에서 채용되는 성과를 거뒀다. 황세하 노동일자리과장은 "앞으로도 구직자와 구인업체를 연결하고 시민들이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정부/기자

경북도, 중소기업 신규 온라인유통망 확보에 물꼬 튼다

온라인 유통채널 11개사 MD 초청, 마케팅 교육 및 1:1 매칭 입점 상담 지원

경북도는 24일 영남대 천마아트센터에서 중소기업의 온라인 판로개척을 위한 마케팅 교육 및 유통채널 입점 품평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유통·소비환경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지속 증가함에 따라 지역 중소기업의 온라인 시장진출에 필요한 역량 강화와 새로운 판로망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기획했다. 이날 행사는 중소기업 80여개사의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채널별 온라인 판매전략 교육 △직매입채널 및 임직원몰 1:1 입점 품평회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온라인교육은 경북세일페스타 제휴 채널 11개사의 상품기획자(MD)들이 직접 맞춤형 판매전략, 온

라인마케팅 비법 등 채널별 효과적인 판매촉진을 위한 노하우를 전수했다. 특히 품평회에는 입점이 까다로운 직매입 채널 4개사와 임직원 채널 1개사를 특별 초청해 중소기업 관계자와 채널 상품기획자(MD)간 1:1 매칭 방식으로 품평회 시간을 가졌다. 세부내용으로는 참여기업에서 출품한 주력 제품들을 전시해 생활용품, 뷰티, 식품 등 담당 상품기획자들이 직접 제품을 보고 제품경쟁력, 입점절차 등을 상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품평회에 참여한 중소기업 대표는 "평소 직매입 채널에 입점하기를 희망했지만, 입점방법에 대해 상담할 기회조차 없었다"면서 "오늘 MD들



을 한자리에 만나 자사 제품에 대한 현실적인 개선점과 판매전략 등 원하는 채널에 입점 가능한 기회를 얻게 되어 소중한 시간이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윤희란 경북도 기업지원과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온라인시장 진출

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유통망 확보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라고 전하며 "입점 지원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마케팅 전략 등 다양한 판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부산시·하나은행·부산신보, 소상공인 특별자금 지원 업무협약

5.24. 10:30, 시청 7층 영상회의실에서 부산시, 하나은행, 부산신보 간 업무협약 체결

부산시, 하나은행, 부산신보보증재단이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와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해 힘을 모은다. 부산시는 오늘(24일) 오전 10시 30분 부산시청 7층 영상회의실에서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 경감과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염원을 담아 하나은행, 부산신보보증재단과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소상공인 특별자금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부산시 소상공인 특별자금'은 소

상공인에게 자금을 대출해 주고, 시에서 이자 비용의 일부를 지원(이자보전)하여 소상공인의 금융비용을 완화해 주는 정책자금으로, 이번 협약을 통해 하나은행은 '부산시 소상공인 특별자금' 보증 재원을 특별 출연하며, 시는 기존 1.5%에서 2.5%로 이차보전을 확대 지원하고, 부산신보보증재단은 보증료를 감면하여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한다. 이번 협약은 하나은행에서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에 동참하고, 지역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100억 원의 특별출연 의사를 내비침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대출 규모는 총 1,500억 원이다. 자금은 총 3차에 걸쳐 지원될 예정인데, 1차 정책자금은 600억 원 규모로, 하나은행과 부산신보보증재단을 통해 오늘(24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시는 3고(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현상 지속과 에너지 가격상승 등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이 증가함에 따라, 5월 8일부터 소상공인 특별자금 600억 원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을 2.5%로 확대 지원한

바 있으며, 이번 하나은행의 동참으로 추가로 600억 원에 대해 2.5% 이차보전을 하게 됐다. 이성권 경제부시장은 "중앙 금융기관인 하나은행이 세계박람회 유치와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앞장선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한다"라며, "이번 협약이 세계박람회 성공 유치와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난 해소에 도움이 될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송종진/기자

고양특례시, 우주항공분야 미래산업 발전 강화한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KAU 우주시스템기술연구소 개소식 참석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지난 22일 한국항공대학교 우주시스템기술연구소 개소식에 참석했다. 22일 개소한 한국항공대 우주시스템기술연구소는 한국항공대학교가 우주 연구·개발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공학대학 건물 내 설립한 부설 연구소다. 우주시스템기술연구소는 인공위성 탑재 분야 최고 석학인 오현웅 항공우주 및 기계공학부 교수를 소장으로 하여 4개 학과 교수진이 유기적으로 협업해 운영한다. 이동환 시장은 이 자리에서 "고양특례시는 K-UAM 실증사업,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등을 통해 고양시 미래산업 발전을 강화할 것"이라며 "한국항공대학교 우주시스템기술연구소 개소는 항공우주분야 고양시 미래산업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양특례시는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과 실증사업에 잇따라 선정됐다. 지난 5월 4일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에 선정되어 향후 3년간 총 400억원 규모로 도심항공교통 및 드론실증 사업 등을 포함, 데이터 허브 및 플랫폼 구현 등 스마트시티 확산거점을 조성할 예정이다. 5월 12일에는 'K-UAM(한국형 도심항공교통) 실증사업'에 '고양컨텍스와 김포공항간 UAM 실증 노선'이 확정되어, 향후 UAM 수도권 실증을 바탕으로 인근 산업단지와 협력하여 산업 인프라 조성, 데이터 분석, UAM관제센터 구축 등 항공모빌리티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한영기/기자

대전시, 혁신기술 공공테스트베드 사업 본격 추진

대전시는 23일 '혁신기술 공공테스트베드사업' 선정기업과 실증기관 담당자들이 모여 착수 회의(Kick-off)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다. '혁신기술 공공테스트베드사업'은 혁신기술을 개발하고도 초기 시장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29개 기업 신청 기업 중 전문가 기술 평가 및 발표 평가 등을 거쳐 최종 9개 기업이 선정됐다. 대전교통공사, 충남대병원, 대전테크노파크,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등 10개 공공기관이 실증기관으로

참여해 선정기업의 실증절차를 지원한다. 선정기업과 실증기관은 ▲대전지하철 외상기지 구조물 변위계측을 통한 광섬유 각도 센서 적용성 검증 ▲안전한 도로 구축을 위한 스마트도로 노면 감지센서 및 데이터 플랫폼 실증 ▲비전기반 요양시설 인공지능 낙상 실증 ▲비침습 혈당측정기 체험을 통한 빅데이터 수집 및 AI 성능 개선 ▲키오스크를 활용한 이중 드론 운용 및 배송 서비스 실증 ▲다중이용시설 IoT 기반 무전선 에너지 안전관리시스템 실증 ▲AI 기반 관편형 호흡기 질량감사기의 기

초 신뢰도 및 타당도 규명 ▲로봇 무인 카페 시스템의 제빙기 냉각 시스템 개선 및 음료의 맛 실증 ▲재활용선별장의 폐닐 등 잔재물 재활용(upcycling) 향상을 위한 자원순환 시범거리 조성 등의 9개 과제 실증에 나선다. 선정기업은 지역 공공기관에 시제품을 설치하여 애로 기술 해결과 품질 향상을 위한 실증을 진행하고, 실증기관은 선정기업의 원활한 실증을 위해 공간과 현장 모니터링 등을 제공한다. 또한 선정기업과 실증기관은 '공공실증기관 협의회'를 구성하여 기업

제품들이 실제 사업화로 진행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할 예정이다. 대전시는 실증이 완료된 기업을 대상으로 실증확인서를 발급하여 제품 상용화와 초기 판로개척 및 시장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김영진 대전시 창업진흥과장은 "대전에는 공학, 과학연구개발을 기반으로 첨단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제작 판매하는 딥테크 기업이 많다"며, "딥테크 기업들이 초기에 원활히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원호/기자







청송사과

대한민국 사과의 자부심!

청송사과의 첫 경매가격은 그 해 사과 시세의 기준이 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10년 연속 수상에 빛나는 청송사과.
 수출을 통해 세계로 뻗어가는 K-푸드의 자존심, 청송사과.
 사과는 빨갛다는 통념을 깬 혁신 브랜드, 청송황금사과 '황금진'.

청송사과는 대한민국 사과의 자부심, 그 자체입니다.





경북교육청, 지속가능한 K-늘봄학교 모델 발굴로 교육과 돌봄을 선도한다!

2025년 전면 시행 대비 늘봄학교 시범운영 활성화

경북교육청은 도내 41개 늘봄학교 시범운영 지원을 활성화해 지속가능한 K(경북형)-늘봄학교 모델을 발굴한다고 24일 밝혔다.

'K(경북형)-늘봄학교'는 경북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해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교육과 돌봄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늘봄학교로 도시형, 농번기형, 어번기형, 유·초이음형, 지역연계형 등 다양한 모델이 있다.

도내 41개 늘봄 시범운영교는 △(교육)미래형·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 확대 △(돌봄)수요자 선택형 다양한 돌봄교실 운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K(경북형)-늘봄학교 모델 발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초1 새싹교실은 학교생활 적응 지원, 돌봄대기자 해소 등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큰 호응에 얻어 일부 학교(5교)에서는 초등학교 2학년으로 대상 학년을 확대하고, 1학기 또는 1년까지 연장에 운영하고 있다.

또한 학생 수준과 발달단계를 고려한 미래형 신수요 프로그램을 개설해 무상으로 디지털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하는 디지털 새싹 프로그램에 238명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학교 자체적으로도 지능로봇, AI, 드론 등 학생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해 849명의 학생들이 디지털 역량을 키우고 있다.

수준별 고품질 문화·예술·체육 분야 인기 강좌를 추가 개설해 2,109명의 학생들이 자신의 재능과 소질을



을 개발하고 있으며, 7개 시범운영 학교는 신나는 토요 방과후학교를 운영해 승마, 골프, 밴드 등 특별 프로그램을 602명의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늘봄학교 시범운영교는 수요자 선택형 돌봄교실 운영으로 학부모의 양육부담을 적극 해소하고 있다. 아침돌봄은 21교, 266명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른 등교 시간 돌봄공백을 메우고 든든한 핫 넘식(간편식)과 신체활동을 제공하고 있다.

저녁돌봄은 30교, 366명의 학생들이 심과 배움으로 균형잡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지구대 협조로 순찰을 강화하는 등 안전한 저녁돌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학부모의 갑작스러운 부재 시 자녀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일시 돌봄(6교, 27명)을 제공해 학생, 학부모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

경북교육청은 도·지역단위 늘봄학교 협의회를 운영해 지원 업무를 지속 발굴하고 학교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시범운영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임중식 교육감은 "늘봄학교 정책 사업은 시대적 과제로 교육공동체와 지역사회가 함께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야 하며, 올해 시범운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늘봄학교 모델을 발굴해 전국 확산에 기여하겠다"며 "소중한 우리 아이들에게 질 높은 교육과 촘촘한 돌봄을 제공해 행복한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광명교육지원청, 제52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출전 학생 선수 사전 격려 및 응원

광명 관내 학생선수 소속교 사전 방문을 통한 응원과 격려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은 18일~22일 광명초·서면초·연서초·광남중·광명북중·광명중·철산중·하안중 총 8개교를 방문하여 5월 27일부터 30일까지 울산광역시 일원에서 개최되는 제52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참가 학생 선수들을 사전 격려했다.

이번 전국소년체육대회에는 광명 관내 초·중학교 학생 선수 14명이 경기도 대표로 4개 종목(▲육상-광명초, 서면초, 광명북중, 철산중 ▲검도-광명중 ▲태권도-광남중 ▲배드민턴-연서초, 하안중)에 참가한다.

경기도 대표로 출전하는 학생 선수에 대한 학교 방문 사전 격려는 경기 당일에는 선수가 컨디션 관리 및 경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차원에서 기획됐다. 광명교육지원청은 마음과 정성을 담은 격려금 및 격려의 글을 통해 응원 메시지를 전하며 학생 선수와 지도자들의 사기를 끌어 올렸다.



류관숙 교육장은 "지금까지 잘해 왔던 만큼 경기도 대표 선수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노력과 열정으로 경기에 임하여 의미 있는 경험과 발전적인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또한 "마지막까지 선수들의 건

강 관리와 안전에 만전을 기해줄 것 당부한다"라며 "광명교육지원청은 학생 선수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통해 미래 체육 인재 발굴과 육성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윤용민/기자

울진교육지원청, 울진음악협회와 함께 지역연계예술활동 실시

울진교육지원청은 5월 16일, 5월 23일에 후보 울진문화예술회관과 부구초등학교 체육관에서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2023 찾아가는 음악회'를 실시했다.

이번 음악회는 청소년의 말을 맞이하여 학생들의 예술적 감성과 바른 인성을 함양하고, 나아가 지역 예술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연계 학교예술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준비했다.

울진음악협회와 함께한 이번 공연은 문찬송·박민성의 피아노·바이올린 연주곡을 시작으로 라파르티오의 연주와, 베이스 바리톤 이기백, 소프라노 김의림의 성악 등으로 진행됐으며, 참가자들로부터 뜨거운 박수를 받으며 마무리됐다.



황석수 교육장은 "앞으로도 학생들의 꿈과 끼를 기르는 맞춤형 예술 교육이 활성화되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 나갈 것이며, 이를 통해 행복

한 학생, 행복한 교실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장문화/기자

임태희 교육감 "경기도형 유보통합, 교육정책에 기록될 것" 함께하는 첫걸음, 유보통합 토론회 개최... 정책 공감대 형성

유보통합 전담조직(TF) 운영 결과 공유, 정책공감대 형성 위한 토론회

경기도교육청이 23일 '함께하는 첫걸음, 유보통합 토론회'를 개최하고 현장 맞춤형 유보통합 정책 추진을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2월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유보통합 정책의 과제와 실천 방안,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전문가 의견수렴 등에 노력해 왔다.

지역연계교육 의정부캠퍼스(구 몽실학교)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유보통합 정책 전담조직(TF)의 운영 결과를 공유하고 정보 제공 및 소통 강화로 도민의 공감대를 높이고자 했다.

또한 유보통합 정책에 관심 있는 도민의 참여 확대를 위해 유튜브 경기도교육청TV로 토론회를 중계하고 온라인 질의에 대한 응답 시간을 운영했다.

행사는 임 교육감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도교육청 노수자 유아교육과장의 유보통합 추진 현황 안내에 이어 박은혜(이화여대 유아교육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진행했다.

토론회는 유보통합의 제도(교육과정), 인력(자격제도), 관리체계(조직)로 구분해 분야별로 유아교육 전문가, 유치원 원장의 발제에 이어 참석한 교사, 학부모의 토론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유보통합 정책의 성공



적 운영을 위해서는 정책 추진 방향 공유와 함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점과 협력적 문화 조성 및 정책 추진 동력 확보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

임 교육감은 "유보통합 필요성에 대해서는 따로 말할 필요 없이 모두가 공감할 것"이라며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교육받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좋은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관점에서 유보통합에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토론회가 유보통합 정책 방향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나가

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또 "이 자리에서 나온 의견, 대안들이 유보통합 최종안을 만드는 데 기초자료가 되고, 방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좋은 유보통합 방안이 경기도에서 마련되고, 그것이 국가 정책으로 완성도 높게 반영되어 우리가 추구하는 유보통합의 큰 방향이 되고, 우리나라 교육정책에 기록할 만한 큰 작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혜영/기자

부산남부교육지원청, 생활교육 담당자 역량 강화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은 25일 오후 2시 남부교육지원청 대강당에서 관내 중학교 생활교육 담당자 74명, 유관기관 관계자 10여 명을 대상으로 '생활교육 담당자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 워크숍은 학교폭력 예방과 사안 처리 방법에 관한 특강을 통해 생활교육 담당자의 신속·공정·합리적인 업무 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워크숍은 구청, 경찰서 등 유관기관 관계자와 함께 학생 생활교

육을 위한 기관별 운영 사례 공유, 공동 대처 방안 협의 등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내용의 연수로 운영한다.

학교폭력 예방, 사안 접수 및 대응, 체계적인 사후 관리 등 업무 전반에 걸친 과정을 학교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진행한다.

박귀자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은 "이번 워크숍은 생활교육 담당자와 유관기관 관계자의 전문성 강화, 협조 체제 구축을 통해 더욱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송종진/기자



내 고향 살리고 혜택도 받는

의성사랑 기부제

개인이 고향(지자체)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 복리와 지역 활성화에 활용하는 제도

쉬운 기부 지역사랑 고향사랑 기부금

기부

답례품 구입

세액 공제, 답례품 제공

지역 특산품 생산

10만원 기부 시 세액 공제 100%
3만원 상당 고향의 마음을 담은 답례품 제공

- 기부한도액 : 개인별 연간 500만원 이내
- 세액 공제 : ~10만원(100%), 10만원 초과~500만원(16.5%)

의성군

진천군 유일 책 축제, 생거진천 BOOK 페스티벌 개최

진천군은 지난해에 이어 생거진천 유일 책 축제인 '제2회 생거진천 BOOK 페스티벌'을 오는 6월 10일 진천군립도서관 광장에서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생거진천 BOOK 페스티벌은 군민들에게 책과 문학의 매력을 전달하고, 독서 문화의 중요성을 알리며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마련된다.

특히 '2023 진천의 책 선포식'과 함께 작가와의 소중한 만남, 창의적인 체험, 다양한 문화 이벤트가 펼쳐질 예정이다.

메인무대에서 펼쳐지게 될 선포식에서는 지난 1월부터 진천군민 3천여 명이 함께 선정한 올해의 책을 알리고 독서 릴레이, 독서토론회, 전국 글쓰기 공모전의 시작을 선포하게 된다.

또한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섬, 1948'의 저자 심진규 작가와 같은 공간에서 함께 호흡하는 강연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어 매혹적인 퍼포먼스와 함께 아름다운 비눗방울의 세계를 경험할 버블쇼와 도서관 음악회가 진행된다.

축제장 내 독서코루존에서는 진천군립도서관 사서의 주제별 전문정보 서비스가 제공되며 관심사가 같

은 이웃들과 소통하고 토론하는 장이 마련된다.

그리고 자신만의 독특한 이야기를 요즘 떠오르는 기법인 웹툰으로 표현해 볼 수 있는 웹툰창작체험관과 아로마테라피, 북스타트, 보드게임, 과학실험, 전통놀이, 수어체험, 토피어리 만들기, 캘리그래피, 진로상담, 창의미래센터 4D 체험 등 다양한 체험행사를 함께 선보여 참여자들의 흥미를 높일 계획이다.

같이 마련되는 책나눔 부스에서는 도서교환전, 도서나눔전도 펼쳐진다.

현장에는 가족 단위 참여자들에게 독서피크닉을 선물하기 위해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도서관 옆 공원에서 소풍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예정이며 체험활동 후 확인 도장을 받아오면 맛있는 간식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열 계획이다.

아울러 진천군립도서관 실내에서는 '독서동아리 워크숍 및 티타임 토크'와 다양한 전시회가 운영된다.

군 관계자는 "생거진천 북 페스티벌은 책과 독서를 사랑하는 군민들에게 유익하고 놀라운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라며 "책을 통해 지역민이 화합하는 의미 있는 자리인 만큼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경기바다야 반가워!', 경기도, 해양환경보전교육캠페인 추진

도내 초·중·고 대상 해양환경교육 '경기바다야 반가워!' 진행

경기도는 도민 대상 해양환경보전교육과 캠페인으로 이뤄진 해양환경 보전 인식증진 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환경보전교육센터에 위탁해 진행하는 이번 사업은 도민들이 직접 해양 환경 보전에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해 경기바다와 해양 환경에 대한 인식을 증진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해양 환경 보전 인식증진 교육은 '경기바다야 반가워!'라는 이름으로 진행된다. 지난달 도내 초·중·고 및 지역아동센터 등을 대상으로 참여자를 모집해 39개소 145학급을 선정했다. 교육은 학교로 찾아가 이론교육과 놀이, 실천활동 등을 하는 방문형과 직접 경기바다를 찾는 탐방형으로 구성돼 있다.

방문형은 해양 환경 전문 강사가 도내 초·중·고교를 방문해 학급별로 교육을 실시하며, 경기도 해양생태

계 및 해양쓰레기 문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기바다야 반가워!' 교재를 중심으로 교육을 추진한다.

탐방형은 시화호, 대부도, 백미리, 시흥 갯골 등 4개소를 선정해 생물 다양성을 탐방함으로써 미래 세대에 게 경기도 해양에 대한 자긍심과 생태적 가치·보전의식을 고취할 계획이다.

도는 연말까지 2,950여 명을 대상으로 방문형 120회, 탐방형 30회의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해양 환경 보전 캠페인은 6월 1일부터 3일까지 경기상상캠퍼스에서 진행되는 '제1회 환경교육 주간행사'와 6월 9일부터 11일까지 화성 전곡항에서 열리는 '제13회 화성 냇물이 축제'를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캠페인은 '경기바다로 알기', '경기바다를 위한 나만의 실천다짐', '경기바다를 담은 모빌만들기' 등 다채로운 참여형 프로그램으



로 구성돼 있다. 김성곤 도 해양수산과장은 "경기바다의 생태적 가치를 알리고 지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해양쓰레기의 근본적인 저감을 위한 인식증

진이 필요하다"라며 "해양 환경 보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자발적인 해양 환경 보전 의지를 고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조혜영기자

제24회 화순운주문화축제 개최

2023 도암면민의 날 및 경로위안잔치 병행

2023년 도암면민의 날과 경로위안잔치를 병행한 제24회 화순운주문화축제가 5월 26일부터 30일까지 전불천탑 신비가 깃든 화순군 도암면 운주사 일원에서 "일어서는 와불, 감동을 이어가다"라는 주제로 열린다.

올해로 24회를 맞이하는 화순운주문화축제는 첫째 날인 26일, 도암농악단의 길놀이를 시작으로 오전 10시 개막식에 이어 신발양궁, 바구니 율기 등 도암면민 체육행사, 노래자랑 순으로 다채롭게 진행된다.

면민노래자랑 초창가수로는 히트곡 "자기야"로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가수 박주희 등이 출연한다. 축제 둘째 날인 27일 석가탄신일에는 운주사에서 불상제막식이 있다. 버스킹 공연, 커피 바리스타 체험,

다육 등을 전시하며, 관내 지역 특산품 소개 및 판매, 가훈 써주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축제 마지막 날에는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통놀이 체험 및 마술쇼, 제기차기, 윷놀이, 굴렁쇠 체험, 투호놀이 등 각종 체험행사가 준비돼 있다.

특히, 마을별 단체 사진과 일하는 모습 등이 담긴 '도암사람들 사진전'이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을 것으로 보인다.

박용문 축제추진위원장은 "주민과 관광객들이 축제를 즐기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라며 "가족, 지인과 함께 오셔서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윤경호기자



"효 가치를 계승하는 주민 화합의 장" 제7회 시흥시 신천동 효 축제



신천동 마을축제추진위원회가 지난 20일 신천근린공원에서 '제7회 신천동 효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신천동 효 축제는 지난 2017년을 시작으로 올해 7회째를 맞이하고 있는 신천동의 대표 축제다. 3세대 가족이 함께 보고, 느끼고, 즐기며 나의 뿌리를 찾으면서 조상의 얼을 느끼고 몸소 체험하는 주민 화합의 장으로 자리 잡았다.

올해 효 축제에는 유관단체, 관내 학부모회 등 다양한 단체가 전통혼례 의상 부스를 비롯한 각종 만들기 체험, 건강검진 부스 등 20여 개의 다채로운 부스를 운영해, 효 축제 취지에 맞게 어르신들에게 무료 식사를 대접하며 온정을 나눴다.

또, 삼미시장부터 길놀이를 시작해 개막식, 풍물놀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공연, 태권도 시범, 댄스 등

아리 및 지역가수, 평양아리랑예술단 공연 등 전 세대가 즐길 수 있는 15여 개의 공연이 체험 부스와 함께 진행돼 주민들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송현수 신천동장은 "축제를 개최하는 데 도움을 준 많은 단체와 즐겁게 참여해준 주민들에게 감사드립니다"며 "효 축제를 통해 신천동 주민들이 한 곳에 모여 화합하고 소통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행사를 주관한 한기용 마을축제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신천동은 예부터 효의 고장으로, 효 축제를 통해 어르신들이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축제를 만들고 싶었다"며 "많은 주민이 찾아준 덕분에 축제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신우용기자

고양시 가좌동 '제2회 미래로 가좌! 가재울 축제' 개최

주민노래자랑, 풍물공연, 아나바다 장터 등 즐길거리 제공

불기운이 가득한 지난 5월 20일 고양특례시 가좌동은 마을 축제인 '미래로 가좌! 가재울 축제'를 지역 주민 등 약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개최했다.

작년 1회 축제에 이어서 올해 두 번째 개최한 이번 축제는 더 알차고 풍성한 행사를 준비하여 참여하는 주민들의 얼굴에 웃음이 가득한 축제의 한마당이 됐다.

이날 축제는 아이들이 팀을 이뤄 공연한 방송댄스, 랜덤플레이

와 송포농협 풍물예술단 등의 사전공연으로 시작이 됐다.

이어 이동한 고양특례시장 및 고양특례시의회 의장 등 여러 내빈분들이 참석한 개회식을 진행했다.

또한 ▲아나바다 장터 ▲찾아가는 건강·행정부지 부스 ▲마크라메·키즈공예·캘리그래피 ▲명리·타로 ▲주민노래자랑 등의 볼거리·즐길거리·배울거리의 다양한 내용으로 축제를 꾸며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즐거운 시간을 마

련했다. 축제에 참여한 주민은 "코로나로 인해 집에만 있다가 오랜만에 주말에 아이들과 함께 여러 좋은 프로그램들을 체험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좋았다"고 말했다.

이동한 고양특례시장은 "축제의 이름처럼 미래로 가는 가좌동에 주민 여러분들이 축제 기간 동안 모두 화합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영기기자

장흥소방서, 봄날(애) 화재예방 안전꾸러미 나눔행사 가져



장흥소방서는 봄철 화재예방대책 특수시책 일환으로 3~5월 기간 동안 봄날(애) 화재예방 안전꾸러미 나눔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특수시책 내용은 계절별 화재발생 순위가 1위인 봄철기간 산불조심, 범국민 화재예방 경각심 고취 등 안전한 내 고장 장흥군 만들기 캠페인을 목적으로 119안전타일, 119종이모자, 화재예방키링, 화재예방홍보물 등을 장흥군민의 날 및 보림문화제, 제암산철쭉제, 수문항기조개 축제 기간 중점적으로 나눔 행사를 가져다.

더불어서 고향사랑기부제를 23년

1월에 전격 시행하는 바 담배품으로 주택화재 안전꾸러미(소화기, 화재감지기)를 홍보하는 스티커를 배부하여 장흥군의 주소지 외에 타지역민 대상으로 장흥군 부모님택 또는 친인척에게 안전을 선물하는 등의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전남공통 특수시책 실현에 한발 앞장서 나갔다.

소방서 관계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전국적으로 축제가 활성화하는 바 미리 화재예방 대책에 나서야 한다"며 "적극적인 화재안전 정책을 세워 장흥군의 화재발생을 제로 화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재원기자

2023년 울진 바지게시장 큰잔치 개최

울진군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어린이, 지역주민, 관광객에게 친근한 전통시장 이미지 제고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2023년 울진 바지게시장 큰잔치'를 개최했다.

이번 울진 바지게시장 큰잔치에서는 마술공연, 추억의 뽑기, 소원수리 바지개, 사진 촬영 등을 통해 군민 및 관광객들에게 재미와 즐거움을 선사하고 보부상 콘텐츠를 통해 울진 바지게시장 홍보에도 힘썼다.

특히 이번 동행축제에는 울진 바지게시장의 미래 고객인 울진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고우이 어린이집, 참사랑 어린이집 원생들이 함께해 마술공연, 풍선아트를 관람하여 어린이의 웃음소리가 함께하는 활기찬 축제였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장날에 개최한 이번 축제는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함께 어울려 지역주민과 상인이 함께 할 수 있었던 축제였다"며 "특히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된 문

화관광형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을 통해 울진만의 특화된 전통시장 만들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장문희기자

인천 동구, 어린이 공연예술축제 아시테지 BOM 개최

인천 동구가 오는 6월 인천 곳곳에서 개최되는 어린이 공연예술축제 '아시테지 BOM 나들이' 행사에 참여한다.

동구문화체육센터는 6월 16일 오전 10시 30분과 17일 오후 4시 2차에 걸쳐 서커스 음악극 팀 퍼니스트의 '체어, 테이블, 체어' 공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또 전시홀에서는 17일 오후 3시 미국 출신 예술가인 그레고그가 이끄는 그레고 퍼펫의 '그레고 인형 음악대' 부대행사를 개최한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어린이를 위한 공연예술축제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다"며 "더욱 안정적으로 축제를 운영하고 홍보를 강화해 더 많은 관객들이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연은 초등학생 이상 관람 가능하며, 인터파크티켓을 통해 예매하면 된다.

'체어, 테이블, 체어'의 관람료는 전석 1만 5,000원이며, '그레고 인형 음악대'는 무료이다.

한편 인천지역 공공극장과 (사)국제아동청소년연극협회 한국본부가 업무협약을 체결해 성공적인 막을 올렸던 아시테지 BOM 나들이 축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6월 8일부터 25일까지 총 18일간 인천 곳곳에서 개최된다.

양질의 공연을 선보이기 위해 아시테지 코리아는 올해 3월 공연 프로그램 공모를 진행했으며, 총 83개 개인 및 단체가 공모에 지원했다. 예술감독을 포함한 3인의 작품선정위원회가 엄격한 심사를 통해 총 9편의 작품을 선정했다.

올해 축제는 동구를 비롯해 남동문화재단, 미추홀학산문화원, 부평구문화재단, 계양구시설관리공단, 서구문화재단, 중구문화재단, 문화예술회관, 인천문화재단 등 총 9개 기관이 참여한다.

김종남기자



한민이주인
희망찬 봉화



Welcome to 봉화!

봉화군에서 함께 살아요!

전입축하금 지원(봉화사랑상품권)

- 전입 시 10만원
- 전입 후 1년 경과 20만원 지급
- 2023. 1. 1. 이후 전입자부터 지원
- ※ 문의 :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 679-6143)

전입 청년 주택임차료 지원

- 19세 ~ 49세 청년 전입자
- 월 10만원씩 최대 3년 지급
- 2023. 4. 17. 이후 전입자부터 지원
- ※ 문의 :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 679-6143)

가업승계소상공인 정착지원

- 19세 ~ 49세 가업승계 소상공인
- 월 100만원씩 최대 3년간 지급
- ※ 문의 : 인구정책과 일자리창출팀(☎ 679-6188)

가업승계농 정착지원

- 50세 미만 가업승계 농업인
- 월 100만원씩 최대 3년간 지급
- 2023년 하반기 중 시행 예정
- ※ 문의 : 농업기술과 기획교육팀(☎ 679-6835)



인구 3만+

봉화사랑! 주소찾기 운동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입니다”



 봉 화 군